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4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23일)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사찰 홈피 '모바일化' 실무 활용교육 시급

[진단] 모바일 불교, 어디까지 왔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모바일 뱅킹' '모바일 상담' 등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찰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앞서 기능 활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높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8년 공개한 '2017인터넷이용실태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접속기기 비중(복수응답) 중 스마트폰 이용은 94.1%에 달했다. 데스크톱 61.2%, 노트북 32.6%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접속 방식에서도 무선인터넷이 99.4%로 유선인터넷의 71.3%를 크게 앞질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에서의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7년 10대 97.6%, 20대 99.8%, 30대 99.8%, 40대 99.4%, 50대 97.6%, 60대 81.2%, 70대 31.2%에 달했다. 특히 50대의 경우 2016년 94%에서 2017년 97.6%로 이용률이 3.8% 증가했으며, 60대의 경우 2016년 73%에서 81.2%로 이용률이 8.2% 증가했다.

이처럼 4060세대의 모바일 접근성 증대에 맞춰 최근에는 불교계도 모바일화가 한창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사찰 홈페이지이다.

전국 교구본사 사찰을 조사한 결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6곳에 달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사찰은 조계종 종단 홈페이지를 비롯해, 월정사, 법주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관음사, 봉선사 등이었다. 이에 반해 PC 홈페이지만을 운영하는 사찰은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마곡사, 금산사, 송광사, 선운사 등 7곳에 불과했다.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 맞춰 디자인된 홈페이지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기에 따라 자동으로 홈페이지가 변환되는 반응형 웹을 불교계 최초로 도입한 서울 봉은사는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능을 선보였다. 나혜진 봉은사 홍보 사무관은 "신도 이용자들이 대부분 모바일 기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2018년 불교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의 경우도 유튜브 채널과 연계한 법문, 교계 뉴스 등을 전하고 있으며, 모바일 신도 커뮤니티 'With'도 선보일 예정이다.

일부 사찰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사찰 대부분은 단순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

장현호 쌍계사 홈페이지 담당자는 "사찰 내 홈페이지 개발이나 관리 등 역량을 지닌 인력이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동화사 홈페이지 담당자는 "반응형웹으로 구축했지만 행사 사진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접속이 많지 않아 행사나 법문 위주 콘텐츠 외에 새로운 콘텐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대부분 모바일로
고연령 '모바일 이용' 뚜렷
모바일 기부영수 발급 등
사찰 홈페이지 변화 눈길

관계자 기능 숙지 미숙해
모바일화 역량 확대 필요

현재 종단 차원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이 2018년부터 종단 산하 신행-포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뉴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불교IT전문업체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를 얻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사찰 관계자들의 트렌드에 대한 인식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방치된 홈페이지는 방문자에게 정보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사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발과 대중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고민할 때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계 모바일화에 맞춘 활용 교육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월 18일 열린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7대 종교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미독립선언서 원문이 인쇄된 벽면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文 "신계사 템플스테이, 금강산 관광 교두보"

원행 스님 참석 종교지도자 오찬서… "조계종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7대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계 협력을 당부했다. 남북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 공동회장단을 초청해 2월 18일 청와대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2017년 12월에 이어 2번째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에 앞서 마련됐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남북 종교계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라면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에 대한 뒷받침은 물론이고 북한 측과 협의하는 것까지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지난 12일부터 13일 북한 금강산서 열린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행사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함께 잘 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 간 공식적인 관계가 막혀있을 때 특히 종교계는 다른 어떤 민간분야보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수월한 측면이 있다. 상징적인 효과도 매우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초청 취지에 맞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기리는 동시 타종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감사를 표하는 한편 종교계의 국민통합 역할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기미독립선언서가 대형 인쇄된 벽면을 설치해 행사장을 꾸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0년 전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면서 "선조들이 꿈꾼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데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원행 스님은 건배제의를 하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님의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선창했다. 참석자들은 포도주스가 담긴 잔을 들며 "통일로"라고 외쳤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김희중 대주교(천주교주교회의장),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3.1운동 100주년 불교계 선언문 채택

종단협, 3월 1일 조계사 공동법회서 발표 예정

3.1운동 100주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이를 기념하는 불교계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2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5차 정기총회 및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일 조계사에서 봉행할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서 발표할 불교계 선언문을 확정했다.

종단협이 채택한 선언문은 '3.1운동 일백주년 기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계 선언문'으로 정해졌다. 선언문은 "조선인이 본래 지닌 독립권과 자유권의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삼일정신이다. 삼일정신은 무력이 아니라 도덕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선언했다"며 "이제 삼일정신이라는 씨앗의 과거 백년을 이어받아 미래 백년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옛것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만드는 지혜의 수레바퀴가 되어 거듭거듭 우리들을 일깨워 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불교계는 불교선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편가름의 언동과 행위 일체 배격 △대립에 중도와 화쟁사상으로 노력 △자비와 평화를 중요가치로 공동체 평화 노력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기여 등에 모든 국민이 나설 것을 호소한다.

이뿐만 아니라 선언문에서는 "독립이란 억눌리고 오그라들고 사그라진 양심과 위엄과 체면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며, 각 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며 "3.1독립선언서는 개인의 자주독립이 곧 세계인의 자주독립으로 이어지고, 나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사해(四海)의 동포들에게 주지시킨 성스러운 선언"이라고 1919년 3.1운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백년대계본부 재편 눈앞… '싱크탱크' 기대

단위사업 지양, 현실 가능한 종책 검토에 집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7년 조계종 미래 전략기구로 출범한 백년대계본부가 2년 만에 전면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 위원회 구성에 큰 변화를 꾀하고, 운영방향을 단위사업이 아닌 현실 가능한 종책제안 등에 맞춰 본격적인 '싱크 탱크(Think Tank)'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오는 3월 말 출범을 목표로 재편 중인 백년대계본부는 기존의 대중공사추진위원회 · 종책개발위원회를 해산하고, 종령개정을 통해 신규위원회인 화합과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를 추가했다. 지난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백년대계본부를 종단 혁신 원동력으로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후속조치다.

이 중에서도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것이 바로 화합과혁신위다. 지난해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주요 소임자들의 스캔들로 1년여에 걸쳐 조계종이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종도 의견을 듣고, 종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화합과혁신위다.

화합과혁신위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식적인 위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구본사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중진 비구니스님 등을 중심으로 섭외를 준비 중이다. 특히 소통에 방점을 둔 위원회인 만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15인 이내의 기획위원회, 30인 이내 인원이 모여 집중 논의를 하는 작은 대중공사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 활동은 온 · 오프라인의 투 트랙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오프라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일명 '끝장토론'을 벌이는 작은 대중공사가 중심이며, 온라인은 실명제 게시판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화창달위는 그간 불교계서 이룬 문화 계승과 보전 등 성과에 힘입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단순히 불교관련 전시나 출판이 아닌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불교가 녹아들 수 있는 매개를 찾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백년대계본부는 다양한 문화분야에서 저명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을 섭외할 계획이다.

백만원력결집위는 대중보살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성취하기 위해 신설된다. 대대적인 모연캠페인을 주축으로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아름다운동행, 승려복지회 등 기존 모연단체들과의 중복성을 없애고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기존 종단불사인 위례신도시 · 세종시 사업 등이 아닌 대중을 하나로 결집할 화두를 정해 모연에 나설 방침이어서 백만원력위가 어떤 불교적 가치를 공표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위원회인 미래세대위원회는 1기의 회향과 2기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1기가 대학생 ·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도시락 등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펼친 데 이어 2기는 단위사업 대신 청년층의 고민을 정서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들 대다수를 청년층으로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결혼이나 주택문제 등 종교계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담론에 대한 논의는 지양하면서 휴식과 재충전, 문화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백년대계본부 관계자는 "한 차례 안팎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종단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백년대계본부가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며 "이번 본부 개편은 현 집행부가 종단 혁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앞으로 불교발전과 대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산하위원회

화합혁신위원회
- 종단 풀뿌리 의견 취합
- 소통 중심 종책 검토

문화창달위원회
- 대중 위한 콘텐츠 개발
- 분야별 전문가 섭외 중

백만원력위원회
- 대대적 모연캠페인 전개
- 원력 결집할 화두 모색

'혁신위' 등 3개 위원회 신설
종도 제안 · 의견 청취에 방점
오는 3월 출범 목표 추진 중
"불교 가치 사회에 적극 전파"

조계종 연수교육 올해도 '다채'

승가결사체 확대 · 시대 맞는 강좌들 신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스님들의 전법교화 역량 강화를 위한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연수 교육에 시대에 맞는 강좌들을 신설 · 운영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연수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원이 진행하는 연수 교육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의 확대다. 승가결사체는 지난해 19개 단체에서 올해는 24개 단체로 확대 · 선정했으며, 지원금도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4000만원까지 예산을 늘렸다.

봉사활동을 통한 스님들의 자비 나눔의 실천을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48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9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4개 기관으로 총 191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인증교육 연수'는 53개 기관에서 총 57개 과정이 진행된다.

'강좌형 · 순례형 연수'는 스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법계과정' 11개 △'사찰경영과정' 4개 △'선교율과정' 5개 강좌 △'인문사회문화과정' 16개 강좌 △'순례형' 국내 4곳 · 해외 6곳 등 46개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인문사회문화과정 강좌에는 사회적 약자, 공동체 문제, 기후변화 및 생태문제,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트렌드와 시대 흐름에 맞춘 강좌들이 대거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올해부터 '법계과정' 중 견덕 · 계덕 스님 대상인 '종단리더십실무과정'의 교육비를 전면 무료로 시행한다. 또한 특별과정으로 종사 · 명덕(승납 30년 이상) 법계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스님들의 연수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원에서는 2013년부터 강좌형 연수 교육비 20만원 중 '승납 10년 미만 스님'의 교육비 50%(10만원)를, 일반 스님들은 25%(5만원)를 종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종단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을 종단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바랑 메고 바람 따라 겨우내 석 달 동안거가 끝났다. 좌복 위에 화두를 풀어놓고 심검(尋劍)의 칼날로 번뇌를 잘라낸 스님들은 다시 바랑을 멨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만행에 나선다. 사진은 2월 19일 영천 은해사 산내암자인 백흥암에서 안거를 마친 비구니스님들이 도감 소현 스님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백흥암=윤호섭 기자

"수륙재 문화재 등재 공로 감사"

원명 스님 등 7명, 종정 · 총무원장 표창 받아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데 힘쓴 공로자들에 대한 조계종 종정 ·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前삼화사 주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에게 종정 표창을,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 삼화사 김영흠 · 김명남 불자에게 총무원장 표창을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은 각각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전승을 통해 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종정예경실 도민 스님은 세계간화선무차대회의 성공적 봉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종정 표창을 받았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매일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불교문화예술 계통의 무형문화재 개발에 종단도 힘을 보태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잘 격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외에도 어산어장을 보좌하며 염불원 활성화와 어산 보존 및 전승에 힘쓸 어산종장에 법안 · 정오 · 동희 스님을 지정, 증서를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대종사 원적

2월 18일 주석처서 22일 영결 · 다비식 봉행



송광사의 목우가풍을 이끌며 종단 계율 정립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대종사 〈사진〉가 2월 18일 오후 12시 27분 송광사 삼일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승납 75년, 세납 92세.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보성 대종사는 1945년 청암사 수도암 정각 토굴에서 정진하던 구산 스님을 의지해 출가했으며, 그 해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청섭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5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끊임없이 선리를 참구했던 보성 대종사는 이판과 사판을 모두 겸수한 수행자였다. 1950년 범어사 수선안거 이후 해인사, 송광사, 파계사 등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다. 특히 은사인 구산 스님과 가야산 중봉 법왕대에서 정진했고, 한국전쟁 직후 범어사 선원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다. 1962년 통합종단 발족 이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의 소임을 맡았으며, 1969년 구산 스님을 방장으로 조계총림 설립 후에는 율주 소임을 맡았다.

1973년부터 3번에 걸쳐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4차례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1980년 10.27 법난 이후 종단 비상 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단일계단 설립을 주도한 것은 대종사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다.

보성 대종사는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종단 법계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전계대화상)에 추대됐다.

1997년과 2007년 조계총림 방장으로 추대되며 송광사 대중을 이끌었다. 평소 솔선수범해 도량 청소와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일에도 앞장 섰던 보성 대종사는 대중에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 뿐이다"라는 유훈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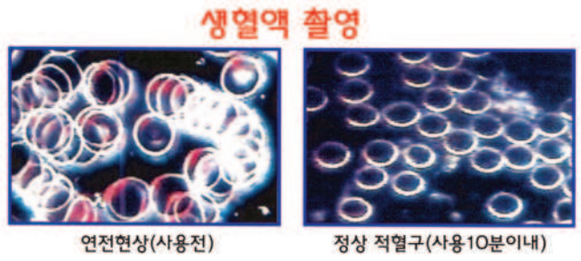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빈소는 송광사 정혜사 큰방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2월 22일 오전 10시 송광사 승보전 앞마당에서, 다비식은 경내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신성민 기자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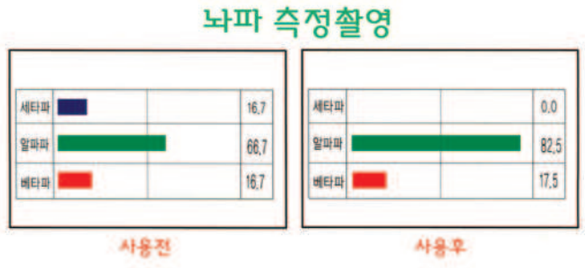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놔파 측정촬영


검버섯 제거 현상


“부산 첫 만세운동, 범어사 대중이 주도”

‘범어사 3.1운동 재조명’ 세미나
전문가들 주장 잇달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10년 촬영된 부산 범어사 명정학교 전경. 명정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7일 동래장터에서 부산 첫 만세운동이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 동래여고 주도의 3월 11일 만세운동보다 빠른 날짜다.

김법린 스님 회고록 2편 근거
“3월 7일 동래장터서 만세운동”
기존 동래여고 기록보다 앞서

범어사 임제종 한국 선맥 계승
불교 왜색화 막아낸 중심 역할



2월 20일 범어사서 열린 세미나.

“범어사가 부산 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입니다. 당시 만세운동을 이끈 김법린 스님의 회고록에 따르면 ‘3월 7일 동래장터에서 시작됐다’ 고 기록돼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범어사 스님들을 주축으로 부산 최초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2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범어사 3.1운동 재조명’ 을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범어사는 세미나를 통해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은 범어사 스님들을 주축으로 시작됐으며 범어사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계승한 중심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화선 운영위원(문화유산회복재단 부산지역)은 “그동안 김법린 스님의 독립만세운동 기록은 외면당해 왔다. 하지만 1946년에 발표된 〈김법린의 3.1운동과 불교〉와 1964년에 발간된 스님의 회고록 〈동래읍 기미 만세사건〉에 따르면 1919년 3월 7일 동래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법린(金法麟, 1899~1964) 스님은 14세에 출가 후 1915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3.1운동 당시 영남 불교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고, 1930년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이어 일제에 대항하는 비밀결사조직인 만당(卍黨)을 결성했다. 1952년 문교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195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1963년 동국대 총장 등 불교 및 정계 · 사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김화선 운영위원에 따르면 1919년 3월 11일에 열린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의 만세운동이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으로 알려진 것은 범어사의 만세운동이 3월 17~1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서다. 1969년 2월 10일 3.1동지회에서 발간한 〈3.1운동실록〉에 김한기 스님은 ‘3.1만세운동 참가한 후 범어사에 도착했고 그 날짜가 3월 15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화선 운영위원은 “김한기 스님은 3월 7일 진행된 범어사의 만세운동에 대해선 자세히 구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범어사 주지는 30본산 주지 대표로 3.1운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동참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도 범어사 사중 스님들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범어사뿐 아니라 김해 · 정관 · 기장 지역 등으로 운동이 확장돼 그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명정학교의 3.1운동 재조명’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배진영 경성대 사학과 강사는 “김법린 스님은 범어사를 중심으로 동래 장날 명정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하고 결사대를 조직, 선언서 5000장을 등사해 3월 6일 오후 범어사에서 선언식을 거행했다”며 “다음 날인 3월 7일 동래 장날 밤에 동래로 잠입해 장꾼들이 모이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범어사는 불교 왜색화를 막아내고 한국 선종의 법맥을 새롭게 계승 발전시킨 불교자주화의 중심지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배진영 강사는 “민족문화적 측면에서 일제의 강제 침탈로 나타났던 불교의 왜색화를 막아내고 민족 고유의 불교를 지켜낸 불교 자주화운동이 범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송광사에서 시작된 임제종은 범어사로 종무원을 옮긴 뒤 동래 · 초량 · 대구 · 서울 등지에 포교당을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불교의 침투에 맞서 한국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수호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신규 교육아사리 11명 위촉

교육원 21일 위촉식… 연구활동 포럼도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11명과,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9명의 교육아사리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승가교육을 이끄는 교육아사리로 11명의 스님이 새로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11명과,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9명의 교육아사리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육아사리 제도는 지난 2010년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종단에서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에는 계율과 선불교, 응용불교에서 새롭게 교육아사리가 위촉됐다. 계율 분야에서는 법장 · 담준 · 유정 스님이, 선불교 분야에서는 진관 · 청강 스님이, 응용불교 분야에서는 태경 · 허허 · 묘광 · 일현 · 동환 · 대현 스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재위촉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의 원철 · 도업 스님, 불교사 분야의 정완 · 문광 스님, 선불교 분야의 철우 · 지은 · 탄호 스님, 계율 분야의 보운 스님, 응용불교 분야의 범우 스님이다.

조계종 신규 교육아사리 임기는 3년이며, 3년 동안의 연구 및 교육활동, 종단 참여율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단의 집단지성인 교육아사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평소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불교와 종단의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이후에는 교육아사리 연구활동에 관한 포럼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콜텍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 발원”

사노위, 2월 20일 서울 콜텍청사 앞서 7시간 릴레이 기도

“13년 전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 명예로운 복직, 해고기간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2월 20일 서울 등촌동 콜텍 청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기원하는 ‘7시간 릴레이 기도회’ 를 봉행했다. 이날 사노위 위원 스님들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등이 정진에 동참했다.

기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사노위 소속 인우, 서원, 법상, 혜찬, 우담, 백비 스님은 80분씩 차례로 염불기도를 진행했다.

콜텍의 모기업 콜트악기는 전 세계 기타의 약 30%를 제작 · 유통하는 회사이다. 박영호 콜텍 사장은 2007년 7월 사전 통보 없이 공장 생산직 노동자 100여 명을 집단해고 했다. 이후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폐업 철회를 위한 13년째 최장기 투쟁을 진행해왔다.

사노위는 “해고노동자 측은 3월 초 박영호 사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나 노사 간 합의할지는 미지수”라며 정년을 앞둔 해고자들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8년부터 2월 13일까지 박 사장이 참여하지 않은 7차례 노사 교섭이 있었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사노위는 기도회와 오체투지 등을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012년 2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으며 회사 측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

“대행 스님 가르침 밑거름, 참된 사람 되길”

한마음선원 2월 17일 제14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정신세계 참사람 육성 위해
매년 대학 · 고등학생 후원
올해 56명 학생 장학금 전달



이날 수여식에서는 총 56명의 대학생 · 고등학생이 장학 수혜를 받았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4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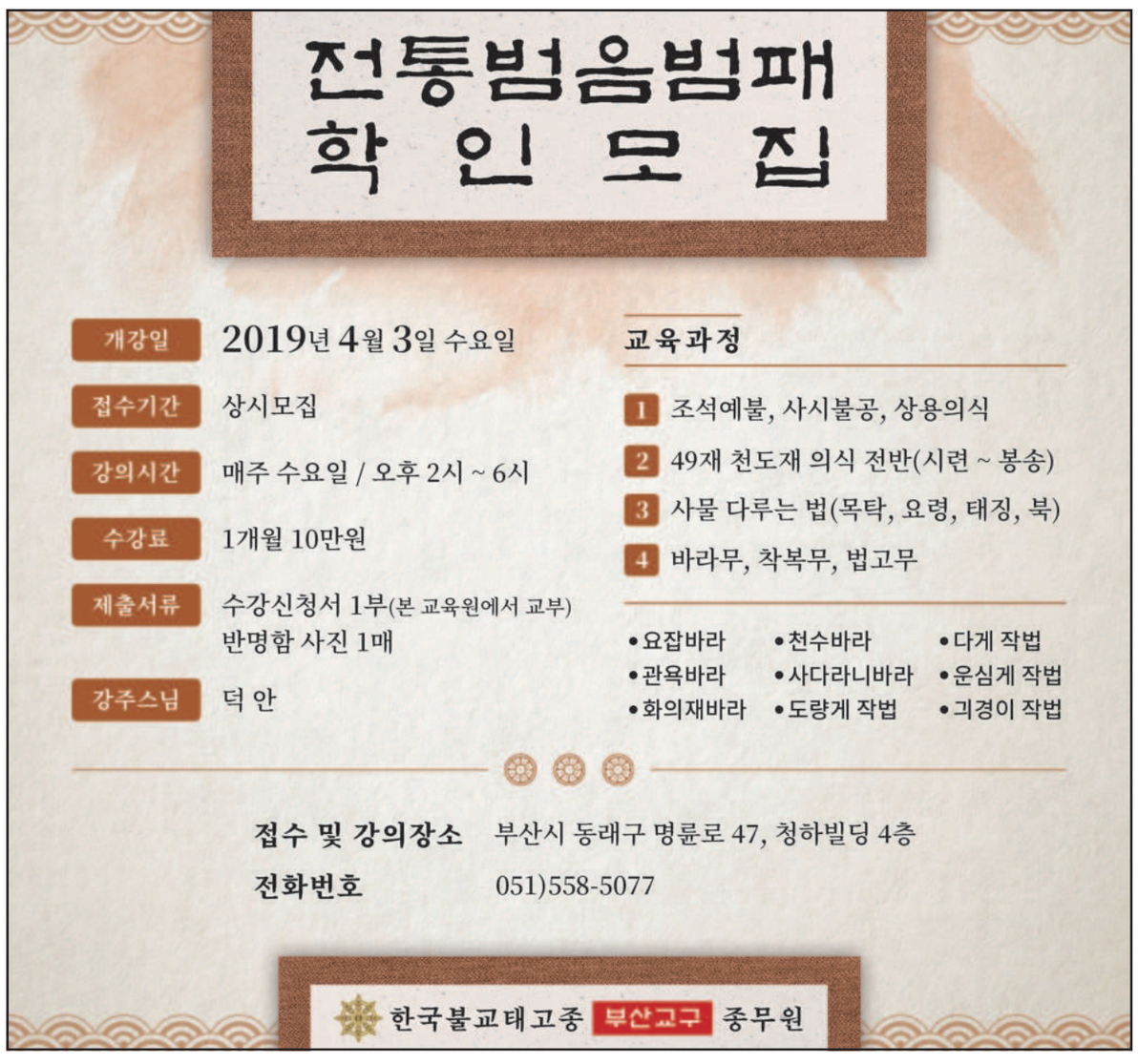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남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라’ 는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제도로 각종 학업우수 학생을 비롯해 신심이 높은 불자학생들을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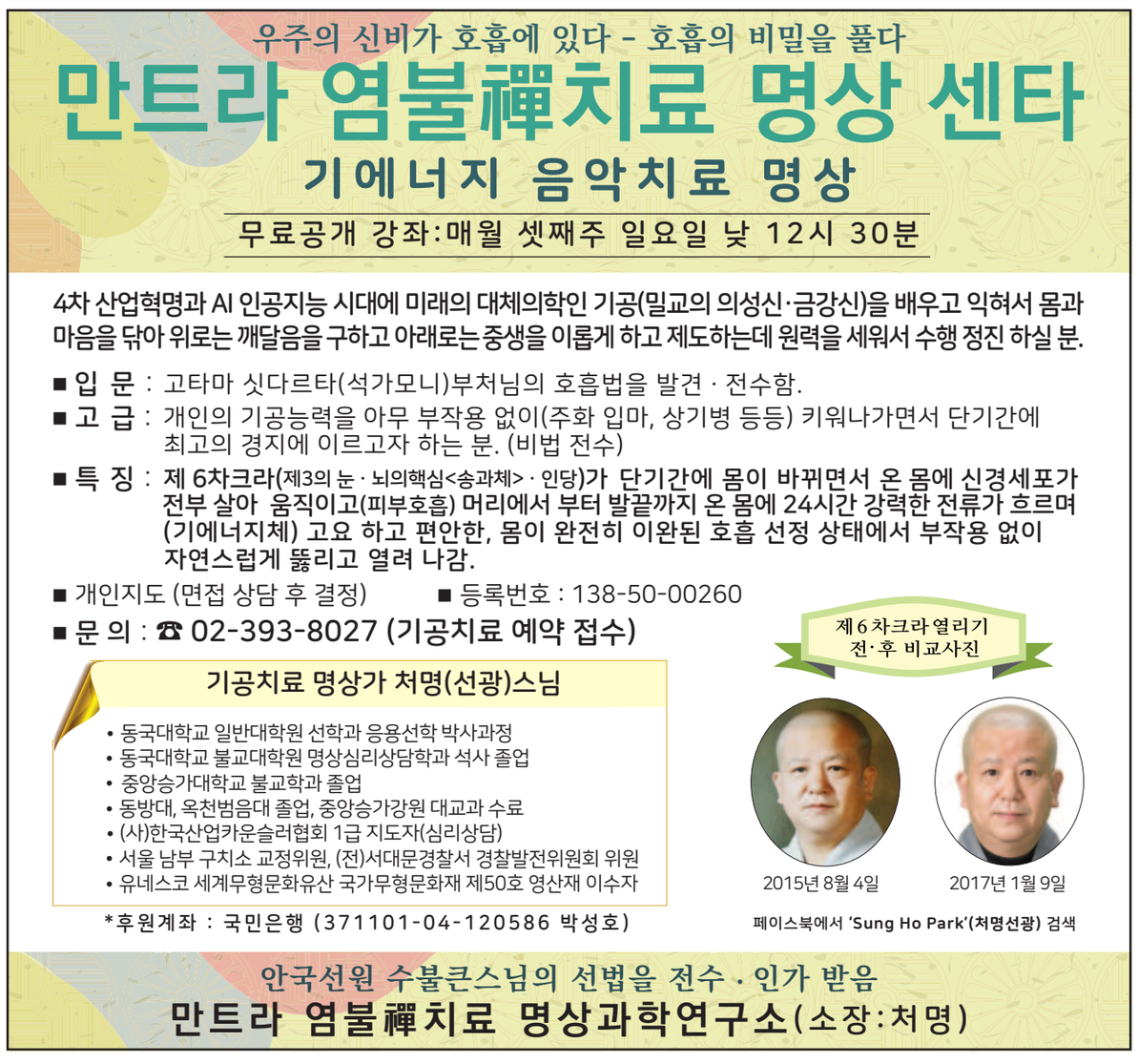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대행장학금은 대학생 12명, 한마음장학금은 대학생 14명, 경인교육대 장학금은 대학생 10명에게 전달됐으며, 불심이 깊은 20명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 측은 “이 자리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후원자분들이 보태주신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행장학회 선발기준은 안양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로 담당스님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하게 된다. 또 경인교육대학교의 불심이 돈독한 우수학생들에게도 수여하게 된다.

한마음선원 측은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회에서 수여되는 장학금과는 다르다.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시고 마음을 내주시는 큰스님의 뜻이 살아있는 마음의 선물이자 양식”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시생 마음 어루만진 1년, 사람 남겼다

개소 1주년 맞은 노량진 마음충전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16일 호빵 500개 나눔
스님 · 불자들이 고시생 상담 진행
우울증,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

매주 한차례 주먹밥 무료 배식
50여 학생 거쳐가며 불심 커져
"후원 절실, 청년포교에 관심을"



마음충전소를 후원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거리나눔 전 1주년 호빵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스님, 만약 제가 이 곳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공시생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 공시생 김 모씨

'헬조선' '5포세대' '청년취업난' 등 최근 청년들을 관통하는 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결실을 맺고 있다. 노량진 고시촌에 위치한 마음충전소가 개소 1년을 맞은 것이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이사장 마가)서 운영하는 노량진 마음충전소가 2월 16일 개소 1주년을 맞아 4시간가량 노량진 거리에서 호빵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나눠진 호빵은 500개로 나눔행사와 함께 청년장학금 수여식, 마가 스님의 축하법문과 만트라 명상, 마음충전소 공로상 수여 등이 진행됐다.

마음충전소는 설립 초기지만 고시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연 50여 명이 이용하고, 4명의 학생들이 불자로 계를 받는 등 반향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1호 합격생도 나와 김포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합격 후에도 충전소에 나와 명상을 하고 가곤 한다.

자비명상 마음충전소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던 아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자비명상 회원의 사연을 들은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량진 고시촌에 세운 청년쉼터다.

현재 등명 스님이 소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음충전소는 7~8명이 이용할 수 있는 10평 남짓한 공간에 마음충전텐트와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다실로 구성돼있다.

마음충전소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매주 월요일 무료 청년 요가 강좌가 진행된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는 무료 명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몸충전 사찰음식 체험, 재미있게 배우는 온전한 휴식법, 쉽게 배우는 몸건강 마음건강법 등 경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또 소망전념 프로젝트와 마음치유 걷기명상을 비롯해 매주 화요일 점심에는 따뜻한 밥한끼 보시 행사와 거리 주먹밥 나눔 행사도 열린다.

마음충전소 소장 등명 스님은 "매주 나온 학생은 5명 가량이고, 틈틈이 나오는 학생까지 하면 50여 명에 달한다"며 "향후 서울시 등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시생 마음건강 콘서트, 마음카드 제작을 비롯한 상담에 힘쓰고 현재 진행중인 카툰을 통한 마음근력 키우기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음충전소의 월세나 전기세를 비롯한 제반비용과 운영은 모두 후원자들의 기부로 이뤄진다. 충전소 청소나 행사 진행도 재능기부와 봉사로 이뤄진다. 마음충전소는 이를 위해 봉사자인 '마음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 모씨는 "마음충전소 봉사자 분들이 모두 저희를 학생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님' 등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사회인의 모습으로 불러주신다. 이 곳 학생 대부분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데 부모님처럼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인근 강남교회의 경우 노량진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 밥을 무료로 제공해 1000여 명이 교회에서 아침식사를 한다. 가톨릭도 이지역에서 아낌없이주는나무CAFE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 고시원 등 청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난 아픔 보듬는 튼튼한 울타리 되길"

조계종복지재단, 네팔에 내진 설계 대피소 건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자연재해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네팔 주민들을 위해 내진 설계된 대피소를 건립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2월 13일 네팔 현지를 방문해 '네팔 다딩지역 하자레가웅 다목적 대피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칼파나 아드시카리 지역대표, 라케스 현지 협력단체 EPF 대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를 재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 대피소를 짓게 됐다. 마음을 내어 변화를 이끌어준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두려움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안전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더 많은 예비초등생 책가방 선물을"

아름다운동행 · KB국민카드, 저소득층 2,166명 대상 지원

조계종 사회공익기관 아름다운동행이 저소득가정 예비초등생에게 책가방을 선물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전달식을 열고 2166명의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올해는 작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에게 지원받아 약 600명이 더 책가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서 이사장 원행 스님은 "부모님 슬하를 떠나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불교에서는 물건을 깨끗이 하고, 돕는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남이 아닌 내가 직접, 보답과 상관없이 보시한다는 4가지 원칙이 있다. KB국민카드 임직원들과 봉사자, 스님 모두 이 같은 마음으로 선물을 포장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번이 5년째 동참이다. 회사가 건재하는 한 선재의 책가방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2,62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 정신 새겨 훌륭한 인물 되길"

동국대, 18일 졸업식… 2,627명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8일 본관 중강당에서 2019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963명, 석사 540명, 박사 124명 등 총 2,62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동악을 졸업한 수많은 동문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그분들의 발걸음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다"며 "여러분은 어디에 나아가든 동국의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이 사회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길 기대한다. 모교 역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새터민 출신 최초 출가자인 도현 스님이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2009년 한국 땅을 밟은 뒤 북한산 덕륜사에서 출가한 도현 스님은 재학 중 '통일 하울림' 동아리를 만들고 새터민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월 20일 수요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1,357명, 석사 58명, 박사 2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7명 등 총 1,424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각 종단 종립대학들도 잇달아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천태종립 금강대와 진각종립 위덕대는 2월 21일, 중앙승가대는 2월 22일 각각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 위원회 통합 재편

2월 21일
제5기 포교 · 신도위원회 위촉

위원장에 혜거 · 지현 스님
신도종책과 포교연구 분야 통합
미래 포교 위한 역량 확대 주력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왼쪽)이 신도연구위원장 지현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종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산하 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3개 분야를 2개로 통합시키고 종책 연구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기 포교위원회 및 신도연구위원회 위촉식을 연 데 이어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부터 산하에 포교, 신도종책, 포교연구 등 3개 분야에 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왔다. 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올해부터는 포교, 신도연구로 재편됐다.

이 중 포교위원회는 포교제도 개선을 위한 종법령 개정안 검토 심의 및 각종 사업을 제안, 검토한다. 또 신도연구위원회는 신도종책과 연구분야를 관장한다. 신도종책과 포교연구위원회의 통합은 양 위원회의 활동이 연구분야로 유관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제5기 포교위원회는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을 위원장으로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 백도수 능인대학원 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제5기 신도연구위원회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회의원 화평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선업 스님, 종회의원 상덕 스님, 정관 스님, 서재영 불교평론 편집위원,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원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위원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포교원이 포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포교종책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합 발족된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은 "현재 포교원은 20년 설계와 신행혁신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 것을 밝힌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신행혁신 등 전법포교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우리말 생활의례 공모를 통해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과 지도교사들이 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노덕현 기자







개막 공연으로 온해피 어린이합창단원 33명이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고 있다.



국내 종교지도자 7인과 20개국 종교인, 학자 등 대표자 13인이 평화기도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무대 뒤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의미를 담은 날개모양 애드벌룬이 펼쳐진 모습.

"100년 전 그때처럼"…한반도 평화 '한마음' 한뜻

3.1운동 100주년 세계종교인 평화기도회 현장

분단과 통일 상징하는 도라산 일대서 개최
7대 종교지도자 및 세계 종교인 · 학자 함께
3.1운동 정신 계승해 '평화의 미래' 발원해

파주=김지원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대표하는 7명의 종교지도자들이 동판에 새겨진 평화기도문을 힘 있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장내 대중은 스크린에 뜬 기도문을 마음으로 함께 읽었다. 기도하는 이들은 100년 전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다.

2월 20일 파주 도라산 역사 안. 한국 7대 종교지도자들과 시민들이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였다. 식민지 저항운동을 체험한 세계 20개국 종교인, 역사학자도 함께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향한 의미가 한층 더해졌다.

국내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종교인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불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개신교) · 오도철 교정원장(원불교) · 김영근 성균관장(유교) · 이정희 교령(천도교) · 김희중 대주교 대리인 이기헌 주교(천주교) · 박우균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리인 김태성 교무(KCRP 사무총장) 등 7대 종단 수장단을 포함한 국내외 종교인 등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3.1운동 정신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세계평화의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했다.

평화기도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평화를 도모하는 장소서 개최됐다. 도라산 일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 철도선 지지목인 침목에 서명한 뒤부터다. 도라산역은 한국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 중 하나로, 비무장지대 주변 민간인 통제구역 내 위치해 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맑은 노랫소리가 역사 안에 울려 퍼졌다. 온해피 어린이합창단원 33명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평화의 미래를 노래했다. '33명의 어린이'는 1919년 종교인들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이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알렸다는 의미가 담겼다.

기도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과 북한의 평화를 위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종교계가 이끈 거국적인 비폭력 평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거행됐다. 국내 종교지도자 7인은 동판에 핸드프린팅과 함께 새겨진 평화기도문을, 세계종교인 대표 13인은 각자 준비한 평화기도문을 자국어로 낭독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발원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로 기도문에 합동 서명했다.

먼저 KCRP 공동회장단인 7대 종단 수장들이 무대에 올라 '기억' '청년' '어머니' '평화' '연대와 협력' '즐겁고 새롭게' '생명의 순례'를 키워드로 기도문을 종교 가나다순으로 읽었다. 원행 스님은 "3.1운동 정신은 '청년'의 기상이다. 100년 전 힘 있는 자에게 무릎 꿇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용감하게 민족자주독립의 새 시대를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훗날 반드시 이뤄질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월 18일 7대 종단 수장단이 환영만찬서 화합의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개신교 기도문에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도 조상들이 남겨준 상생의 유산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로 열매 맺을 것을 믿자는 내용이 담겼다. 원불교는 '어머니'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선언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선언했다. 유교는 불안과 공포 대신 인류 모두 행복한 세상을 지지하는 '평화'를 위해 성찰하자며 기도했다. 천도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선한 마음과 작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자고 발원했다. 천주교 기도문은 차별 없이 이웃과 더불어 '즐겁고 새롭게' 사는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의미가 강조됐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종교인의 책무를 다해 인류를 위한 '생명의 순례'로 나아가자는 내용이었다.

이어 방글라데시, 터키, 일본, 호주 등 20개국 종교인을 대표하는 13명이 평화기도문을 자국어로 낭독해 뜻을 같이했다. 미얀마 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요제프 신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립이슬람대 유스프 교수 등 대표 종교인 및 학자들은 차례로 기도한 다음 기도문에 함께 서명했다.

한층 돋워진 분위기를 이어받아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퍼포먼스가 연출됐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날개' 퍼포먼스는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내외 종교인 대표가 평화기도문을 높이 들어올리며 "한반도 평화"를 선창했다. 참석대중 전원도 뒤따라 "World Peace(세계 평화)!"를 힘차게 외쳤다. 동시에 커다란 날개모양 애드벌룬이 무대 뒷편에 펼쳐지며 장관을 이뤘다. 날개 위에는 '종교와 평화, 새로운 100년'이란 문구가 떠올랐다. 한국과 세계 종교가 화합해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평화기도문 낭독 및 퍼포먼스가 끝난 뒤 원행 스님은 다른 종교지도자들과 인사하며 뜻 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한 반가움을 나눴다. 일정상 이유로 먼저 귀경한 원행 스님을 제외한 참가자들은 도라산 전망대에 올라 자유롭게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짙은 안개로 가려진 북한 개성지역을 내려다보며 눈에 담는 이들은 쉽게 발길을 떼지 못했다.

사회부장 덕조 스님(KCRP 중앙위원)은 탐방 후 "분단의 상징이기도 한 이곳은 국내외 종교인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고 종파를 초월해 화합한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며 "한국 국민의 염원을 보여주는 행사라는 점에서 오늘 행사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담마조띠 스님은 "스리랑카도 30년 전 남북으로 나뉜 적 있어 한반도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5년 전 군사 개입으로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됐지만 한반도는 싸움을 멈추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3.1운동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서로 다른 국가와 종교지만 함께 역사를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행사가 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행사가 끝난 뒤 "100년 전 국민들이 종교와 사상을 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듯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기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 진정한 통일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발원한 감회를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합창단원 박이레(13, 인천동부초) 양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이란 노랫말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며 공연했다"며 "평화기도회 행사에 참여하는 33명 중 한 사람으로 노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모두 함께 세계평화란 꿈을 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노래 불렀다"고 말했다.

한편, 4일간의 KCRP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2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9일 동일 장소서 국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행사의 하이라이트 격인 도라산역 평화기도회를 봉행한 뒤 21일 화성 제암리 등 3.1운동 역사유적지 4곳을 순례하는 일정을 끝으로 회향했다. 불교계 대표 원행 스님 등은 1, 3일차 행사에 참석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 ▶총장실 : (02)511- 1080
- ▶http://www.njutcm.co.kr

“비리유치원 걱정? 여기선 남말”

한마음유치원, 2018 교육활동 우수 유치원 표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얼마 전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사립유치원을 향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다. 이런 가운데 2017년 개원해 3년차에 접어든 신생 사립유치원인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유치원(대표 스님 혜운)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8년 교육활동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돼 부산교육감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끈다.

또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유치원 평가에서 유아 인성과 심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교육, 교사의 업무 지원과 복지 분야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고 A등급 유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한마음유치원 김은영 교사는 유아 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교육 관계자들도 놀라는 이 같은 성과는 유치원의 설립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면서 기본을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어릴 때부터 마음도리를 알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길러내라’ 는 대행 선사의 뜻을 유아 교육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현하고자 한 결과다.

어떤 교육을 하는 걸까? 유치원 관계자는 “어른들이라면 잘 하지 않겠지만 유아기엔 꼭 필요한 것을 한다”고 했다. 봄이 오면 꽃피는 것을 보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며 산책한다. 가을이 오면 유치원 옆에 우뚝 선 태산목에서 떨어진 잎으로 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운다. 한마음유치원은 산과 바다라는 자연환경에 더해 바깥 놀이터가 3개다. 복합놀이기구 놀이터, 흙산 놀이터, 산책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맘껏 놀면서 오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한다고.

명상활동과 놀이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해소하는 경험을 한다. 유아기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면 성인이 돼서도 결핍을 겪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누리 교육과정이나 유아 연령에 꼭 필요한 교구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음유치원은 2017년 개원한 신생유치원이지만 부산서 교육활동 우수유치원으로 꼽힌다. 사진은 원생들이 대근육 활동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3년차 접어든 신생유치원
부산교육감 표창에 ‘눈길’
교사 · 학부모 교육이 성과
“기본 지켰기에 가능한 일”

그러나 한마음유치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환경이나 교구가 아니다. 그 모든 환경과 교구를 활용하는 사람, 바로 교사다.

혜운 스님은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교사 협의 시간을 갖고 교육 주제에 대한 공유와 협의, 평가, 개선의 과정을 반복한다. 교사 명상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마음공부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방학 때마다 1박2일 연수로 내적 성장의 시간도 보낸다. 국공립 교사와 같은 월급과 한 반에 2명의 교사가 배치되는 등 사립유치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들은 자기 계발과 내적 성장에 부지런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쏟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한마음유치원의 장점 또 하나는 학부모 교육이다. 유치원 교육의 완성은 가정에서 이뤄지기에 학부모와 유치원은 교육에 뜻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월 한 차례 유치원 자체 프로그램인 ‘부모 마음공부 학교’ 를 열고 지속적으로 ‘자율형 마음공부 학교’ 를 개설해 희망 학부모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 초청 부모 교육으로 유아 연령별 이해와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누리 과정과 함께 인성 교육으로 진행하는 명상 활동을 부모들도 체험한다. 학부모들은 이런 다양한 부모 교육 활동을 통해 자녀의 교육 활동을 인지하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장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나간다.

역량을 갖춘 교사와 교육에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최적의 환경이 빚어낸 한마음유치원의 원생들은 어떨까? 여러 유치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외부 강사진들은 “집중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월등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술관, 과학관 등에 견학을 가면 한마음유치원 원생들은 더욱 빛을 발한다. “어느 유치원이냐?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놀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고 집중을 잘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혜운 스님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유아들은 따뜻한 사람의 에너지를 받고 자란다. 유아기에 꼭 필요한 그 마음 에너지를 유아들에게 주고자 유치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쓴다”며 “유아, 교사, 부모 모두가 성장하며 스스로 갖춰진 내면의 에너지를 기르고 정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마음유치원은 매일 아침 교사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마음 에너지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는 발원을 하는 조회로 하루를 연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있어 2018년 교육활동 우수유치원이 됐고, 2019학년도에는 125명의 원생들이 마음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길고양이 공존 위한 ‘캣통’ 부산에

(사)동물복지위원회, 기장군에 부산센터 개관

“사람과 동물, 문화와 동물, 사람과 사람을 잇다!”

새로운 동물문화네트워크 공간 캣통(Cattong)이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동물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보혜)는 2월 16일 동물문화네트워크 캣통(Cattong) 부산센터를 기장군에 개관했다.



사단법인 동물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6일 동물문화네트워크 캣통(Cattong)부산센터를 기장군에 개관했다.

(사)동물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산하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를 위한 동물문화네트워크 공간이다. 캣통은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앞장서며 민관 협력사업 활동(TNR사업, 급식소 설치 등)과 지역 캣맘 및 동물보호활동가를 지원한다. 특히 친(親)동물문화 형성을 위한 동물문화페스티벌을 열고 캣문화예술을 위한 갤러리, 공예, 책, 사진, 세미나 등 활동을 펼친다.

개관식에서는 고양이 작가로 불리는 김하연 작가의 ‘구사일생’ , 이지은 작가의 ‘신묘’ , 아롱 작가의 ‘너와 나의 거리’ 등 미니 작가전(展)이 열렸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캣통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아름답게 풀어내기 위한 장소”라며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생명을 위한 평화로운 공간으로 회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캣통은 생명사랑에 함께 동참할 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atto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 살리는 최후 보루 ‘베이비 박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첫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

#지난해 경기도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유기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의 10대 산모는 사산아를 주장했지만 폐호흡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구의 한 하수구에서는 신생아가 버려져 숨졌다. 영아 살해혐의로 구속된 김모(37) 씨는 성폭행 당한 뒤 임신한 여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아기 유기는 범죄다. 버려진 생명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생명 보호와 아이 인권 그리고 산모의 행복권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2월 20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1차 심사에 통과한 부산대 학생 5개 팀이 참여, 토론 주제에 맞춰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유아 유기 현황을 분석,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찬반 입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참가팀 가운데 박소현 · 박정원 학생은 “베이비박스는 양육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안위 사이에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 낙태 불가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마저 힘든 상황이라 부모의 출산 선택권을 국가가 박탈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밀출산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비밀출산제는 친모가 병원에서 비밀출산기관에 통지해 아이를 비밀출산 할 것을 알리면, 기관에서 아이의 후견인이 되고 출생을 신고해 입양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는 성장 후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심혜량 · 류병구 학생은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비밀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 이희숙 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은 “앞으로 아기와 산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동참해 달라”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와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미래세대들이 참여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다양한 사회 이슈를 세대 간 소통으로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플랫폼’ 으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이사장 정각 스님, 상임이사 심산 스님과 패널 및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 수현불교대학 제1회 졸업생 배출

총 57명 2월 17일 졸업

2017년 전주 혁신도시에 개원한 전법도량 수현사 수현불교대학(학장 성우)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수현불교대학은 2월 17일 전법도량 수현사 2층 강의실에서 제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수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성우 스님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졸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첫 번째 졸업을 축하했다.

성우 스님은 “전주의 혁신도시 전법도량에 수현불교대학이 문을 열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현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전법활동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정희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을 수상했으며, 박영진 불자 등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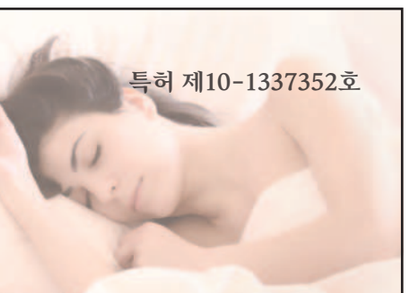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가 초청 강연

“구법승, 고려 특유 茶문화 구축 견인”

주제 : 고려시대 제다와 탕법(湯法)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 소장은… 1953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한문을 배웠다. 1985년 초의선사의 차풍을 이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계(茶道傳偈)’를 받음으로써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 받았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으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전수하고 있다.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과 제 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월 14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고려시대 제다와 탕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동춘 소장은 “구법을 위해 송나라를 오고 갔던 승려나 사신들은 새로운 차의 이론을 이해했던 계층”이라며 “송의 새로운 제다기술(製茶技術)이나 탕법(湯法)을 적극적으로 들여와 고려만의 색채를 띤 차 문화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고려시대 제다법 단차 · 백차가 주류
송나라와의 교류 통해 茶문화 발전
宋황실이 보낸 용봉단차 영향 받아
자체적인 제다기법 · 탕법 정립하기도

고려 차 문화의 흐름

고려는 동아시아 제국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 수준을 높여갔던 시대이다. 이런 흐름은 차 문화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차 문화가 소개된 것은 7세기 불교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말려초(羅末麗初) 구산산문(九山禪門)의 개창으로 불교의 교세가 확장되자 차 문화 또한 왕실 귀족층 및 승려, 관료 문인으로 널리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을 내왕했던 구법승(求法僧)들은 다사(茶事)에 밝았던 계층으로, 고려 초기에 왕실 귀족층과 함께 차 문화를 이끈 주역으로 부상했다. 사전(寺田)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제력을 갖춘 사원에서는 수행에 필요한 차를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통도사 부근에 다촌(茶村)이 형성되기도 했다.

고려의 차 문화는 송나라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송나라의 선진 차 문화를 받아들였다. 구법을 위해 자주 송나라를 오고 갔던 승려나 사신들은 새로운 차의 이론을 이해했던 계층으로, 송의 새로운 제다기술(製茶技術)이나 탕법(湯法)을 적극적으로 들여와 고려만의 색채를 띤 차 문화를 구축했다. 이들이야말로 풍요로운 고려 차 문화의 동력이었다.

무엇보다 고려시대 차 문화가 융성했던 배경은 종교와 정치의 영역에 차가 깊게 침투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왕실이 주관하는 연등회, 팔관회 등 불교 의식에서 왕이 몸소 차를 갈아 부처님께 올렸으며, 9품 이상의 관료나 80세 이상의 노인, 승려, 신하가 죽었을 때도 차를 하사했다.

고려 시대의 제다법

차를 만드는 기술이 신라에 소개된 것은 9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10세기 말 이후 고려만의 색채를 띤 차를 생산, 자급자족을 도모했다. 11세기 이후에는 수준 높은 단차(團茶)를 생산하였다. 12세기 이후 고려는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백차(白茶)를 생산하여, 흰 거품이 나는 차의 풍미를 즐겼다. 이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제다법이 고려까지 소개되었던 것으로, 동시대의 차 문화를 양국이 공유했다는 증거이다.

특히 고려 초 왕실이나 사찰에서 필요한 차는 차의 산지 부근 사찰에 다촌(茶村)에서 생산했다. 이 활동을 주도한 것은 사원의 승려였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계층이 관료 문인으로 확산되는 등 차의 수요가 많아지자, 왕실에서는 특화된 기술력이 집약된 다소(茶所)을 만들어 공납(貢納) 차를 만들었다. 이후 차산지에 차세(茶稅)를 부과했고, 왕실에 올리는 토공(土貢) 차는 지방관리가 관리하였다.

한편 송나라 황실은 고려 왕실에 용봉단차를 보냈는데, 이는 고려의 차 문화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한 편으로는 고려 왕실 및 귀족층이 차를 마시는 풍속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의 개량된 제다법을 받아들여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이규보의 ‘운봉주로규선사득조아다시지여목위유다사청시위부지(雲峯住老珪禪師得早芽茶示之予目爲孺茶師請詩爲賦之)’에는 차의 생육환경을 선명하게 언급하였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방사람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아
(南人曾不怕髦鬉)
험난함을 무릅쓰고 칡덩굴 휘어잡아
(冒險衝深捫葛蘗)
간신히 채취하여 단차를 만들어
(辛勤採摘焙成團)
남보다 앞서 임금님께 드리려 하네
(要趁頭番獻天子)

이규보의 시에서는 12세기경 고려에서 만든 단차의 제다 공정의 일단(一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간신히 채취하여 단차를 만들어(辛勤採摘焙成團)”라는 구절이 그렇다. 더불어 이규보는 제다법을 ‘배성단(焙成團)’이라고 표현했다. 이때 ‘배(焙)’는 차를 만드는 방법과 건조하는 과정을 아우른 말이다. ‘단(團)’이란 완성된 차의 형태, 모양이다. 그럼 단차와 백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단차(團茶)를 만드는 공정에서 차 싹을 따서 줄기나 백합(白合, 차 싹을 싸고 있는 겉피)을 제거하는 이유는 “백합을 제거하지 않으면 차 맛을 해치고 줄기를 따내지 않으면 색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차 싹만을 선별하여 시루에 넣고 증기에 쪄낸다.

제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차 싹을 잘 익히는 일이다. 이 공정에서 차의 품질이 결정된다. 만약 차 싹을 덜 익히면 비린내나 풋내가 나며 아린 맛이 남아 있어 맛이 거칠어진다. 너무 익히면 색 · 향 · 미는 물론 기운이 줄어들어 맛의 탄력과 생기 있는 기운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차를 마셔도 몸의 나쁜 기운을 제거할 수 없다. 차 싹을 찌는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쪄낸 차 싹을 식힌 후, 절구에 넣고 찧어낸다. 이후 차를 분(盆:동이)에 넣고 간 다음에 거의 가루처럼 부서진 차를 뭉쳐서 틀에 넣어 찍어낸다. 틀의 모양은 대개 방형(方形), 화형(花形), 원형(圓形)이다. 이렇게 완성된 차를 뜨거운 숯불에서 말리는데 이것을 배건(焙乾)이라고 한다. 배건은 차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변질을 막고자 함이다. 이때 숯불의 온도가 중요하며 숯불을 피울 때 연기가 나거나 너무 뜨거워 차를 태우면 안 된다. 만약 차에 연기가 스치기만 하여도 맛과 향, 기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차를 만들기 어렵다.

단차의 제다법보다 백차의 경우 더욱 공정이 섬세하다. 송나라 시대의 단차는 정위(丁謂, 966~1037)와 채양(蔡襄, 1012~1067) 등이 대소용봉단(大小龍鳳團)을 만든 후, 더욱더 섬세한 극품의 차로 완성된다. 이는 11세기의 제다법이다. 이 제다법 또한 고려에 소개되어 단차를 만들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백차의 제다법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단차와 비슷한 과정에서 고(膏)를 짜내는 단계가 더 해진다. 또 차 싹에서 고를 짜내 분(盆, 동이)에서 곱게 갈아낸다고 해서 연고차(硏膏茶)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백차 만들기의 첫 과정은 단차와 마찬가지로 차 싹을 시루에 넣고 증기로 쪄낸 후 뜨거운 차 싹을 식히는 것이다. 이후 차의 물기를 제거하는 소착(小搾), 고를 짜는 대착(大搾)을 거친다. 다시 고를 짜낸 차 싹을 절구에 넣고 찧은 후에 분에 넣고 다시 갈아내 고운 가루로 만들어 다시 틀에 넣어 찍어낸다. 배건(焙乾) 방법은 단차보다 정교하다. 특히 백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를 짜내는 연유는 엽록소를 최소화하여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과 향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팽다(烹茶)할 때 찻 사발에 차를 넣어 다선(茶筅)을 이용하여 격불하면 차 거품이 흰 구름이나 흰 눈처럼 흰빛을 띤다. 그러므로 백차라 부른 것이다.

고려에서 이런 제다법으로 만든 차로는 뇌원차(腦原茶)와 대차(大茶)가 있는데 10세기 말~11세기에 생산되었다. 유차(孺茶)는 12세기, 원옥차(圓玉茶)가 13세기에 생산됐다. 화전춘(火前春)과 작설차(雀舌茶)는 14세기 왕실 하사품으로, 귀족층 · 승려 · 관료 및 문인들이 즐긴 차였다.

고려 시대의 湯法

11세기 고려에서는 단차와 백차를 혼용하여 즐겼다. 이는 송나라에서 영향을 받았다. 한편 제다법이 변화하면서 탕법 역시 달라졌는데, 찻그릇의 형태이나 색깔도 영향을 받았다. 11세기에 유행했던 단차는 당대에 유행했던 병차(餠茶)보다 훨씬 섬세한 고급차인데 이는 제다법이 점차 개량되면서 나타났다. 단차를 점다(點茶)하는 방법은 요즘 유행하는 산차(散茶)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에 유행된 점다 혹은 팽다(烹茶)라는 말은 가루차, 즉 단차나 백차를 즐길 때 차를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점다와 팽다를 혼용해 사용하였다.

팽다를 위해 우선 단차를 부숴 가루를 내야한다. 연(碾)에 차를 갈아 체로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햇차는 굽지 않아도 되지만 오래된 차는 굽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1세기경 고려에서도 단차를 연에 갈아 미세하게 가루를 내어 점다했는데, 휘종의 〈대관다론〉에 연(碾)의 재질과 구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휘종이 최고로 평가한 연의 재료는 은이다. 숙철도 괜찮지만 생철은 차색을 해치는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생철의 틈에 낀 잔류물로 인해 차색이 아름답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10세기 고려에서는 다마(茶磨)와 연(碾)으로 차를 갈아 가루를 만들었다. 최승로(崔承老, 927~989)가 성종 원년(982)에 올린 ‘시무28조’에 “전하께서 공덕재를 베풀고 혹은 몸소 차를 갈고, 맥차를 연마하시매(竊聞聖上爲設功德齋 或親碾茶 或親磨麥)”라는 구절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시대에 찻물을 끓이는 도구로는 철병(鐵甁)이나 석정(石鼎), 석조(石竈), 석조(石銚), 다당(茶鎕), 소정(小鼎), 다병(茶鉼) 등을 사용하였다.

고려의 문인들이 차를 즐겼던 이유는 다양했다. 첫째, 병의 치료나 양생을 위한 것이며 둘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수난을 겪었던 문인들은 근심을 잊게 하는 위안처로 차를 즐겼다. 물론 뜻이 맞는 벗과 돈독한 정을 나눌 때, 수신과 양생, 문예를 풍요롭게 했던 여유는 결국 차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 학생모집 안내

2019. 01. 21 부터
2019. 03. 11 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
www.taego.kr
문의처 02)739-3450

대승교화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법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사찰의 교임, 관리인 및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원 입학을 하시기 바라며, 전법사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전형
• 학과 : 전법사교육원
• 모집인원 : 00명
• 교학과목 : 1년(2학기)
• 수강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응시자격
• 전국 사찰 교임, 관리인
•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
• 연령 25세 이상의 전법사 희망자

전형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 일자 : 2019. 1. 21(월) ~ 3. 11(월)
• 구비서류 안내
1.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2. 입학원서 : 종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taego.kr)
3. 사진 2매(3×4cm)
합격자 발표
• 일자 : 2019. 3. 11 월요일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예정

입학 및 개강일자
• 2019년 3월 중
•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 입학식 후 개강

등록금
• 50만원(1학기)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

조계종 모태, 옛 것 이어 새 시대 밝히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④ 태고 보우(太古 普愚)와 태고사



현재 중창불사가 이뤄진 중흥사 대웅보전의 모습. 절터만 남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전각이 복원됐다.

한국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의 전문과 제1조를 보면 태고 보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종조 도의국사께서 조계의 정통법인을 사승하사 가지영역에서 종당을 계양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하고 오교파가 병립하여 선풍교학이 근역에 미만하였더니 여조의 쇠미와 함께 교세가 부진하려 할 새 태고국사께서 제종을 포할하사 조계의 단일종을 공칭하시니 이는 아국불교의 특색이다."

"제1조 본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불절한 것이다."

한국의 선종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태고 보우국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태고를 중흥조로 칭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1301년 홍주에서 태어나 그는 13세에 회암사 광지(廣智)의 제자가 되었고, 1341년 북한산 중흥사 주지로 왔다. 동쪽 언덕에 암자를 짓고 자신의 수도처로 삼았다. 중흥사의 사격이 왕성했을 때 이곳은 동암(東庵)이라 불렀다. 그 후 태고 보우가 이곳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해서 태고암으로 불린다.

이곳에서 5년을 지내는 동안 중국 영가대사의 증도가를 본떠서 장문의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지었다. 총 82구로 내용이 절절하고 정서가 깊다. 이후 자신을 태고라 불렀다.

태고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견처를 확인하고 싶었다. 1346년(충목왕 2) 원나라로 건너가 연경 대관사(大觀寺)에 머물렀다. 궁중에 들어가 반야경을 강설하며 중국의 고승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마침내 1347년 7월 호주 천호암(天湖庵)으로 가서 선승 석옥(石屋)을 만났다. 40여 일 동안 석옥의 곁에서 임제선을 탐구하던 그가 떠나려 하자 석옥은 '태고암가'의 발문을 쓰면서 이 노래는 득도의 경지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깨달음의 신표로 가사를 주면서,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법은 영축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것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잘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임제 의현의 18손인 석옥에게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에게 사사한 까닭에 보우는 한국 조계종의 법통에서 임제선을 계승하며, 어려운 고려 말 선종을 부흥시킨 공으로 중흥조로 평가받는다.

북한산성과 중흥사

북한산성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군사적인 지식이 없어도 천혜의 요새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였다. 백제는 이성을 통해 고구려의 남진을 막고 수도인 위례성을 지켰다. 또한 북진정책의 전진기지였다. 그런 까닭에 백제는 이곳에 행궁을 두었다. 숙종 36년(1710) 12월 판부사 이이명 등이 북한산성을 살펴보고 돌아와 축성의 일을 의논하면서 중흥사(重興寺)에 백제의 궁터가 있는데 창고를 지을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일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수왕 때 이곳을 빼앗긴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길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신라의 진흥왕이 100년이 넘도록 지속된 나제동맹을 깨고 이곳을 차지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북한산성을 비롯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은 산성 인근 비봉에 순수비를 세웠다.

그 후에도 신라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진평왕 25년(603)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북한산성을 포위하자 진평왕 자신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삼국통일을 이룬 태종무열왕도 재위 8년(661) 고구려와 이곳에서 혈전을 벌였다. 이 무렵 신라는 백제 부흥군과 대치하고 고구려와 전쟁 중이어서 삼국통일의 최대 고비였다. 성주 동타천(冬陀川)은 필사적으로 이 성을 방어한 공로를 인정받아 벼슬이 2단계 승급되었다.

고려시대에도 북한산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현종 1년(1010) 거란이 침입했을 때 이곳으로 태조의 재궁(梓宮)을 옮겨오게 했고, 고종 19년(1232)에는 몽고군을 맞아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태고암에 세워진 보월승공탑비

1348년에 귀국한 보우는 다시 중흥사에 머물렀다. 도를 더욱 깊이 하고자 미원의 소설산(小雪山)으로 들어가 4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임하였다. 1356년 왕의 청으로 봉은사에서 설법하였고, 그 해 4월 왕사로 책봉되어 광명사에 머물렀다.



프랑스인이 찍은 옛 중흥사 삼문과 사천왕문.

한국불교 중흥조 보우국사
중흥사 동쪽 태고암서 오도
중흥사 머물며 전법교화
중흥사 중창, 불교중흥 계기로

1363년에 신돈(辛旽)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불법을 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므로, 보우는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邪僧)이 때를 만납니다. 왕께서 살피시고 그를 멀리하시면 국가의 큰 다행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신돈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자 왕사의 인장을 반납하고 전주 보광사로 내려갔다.

우왕 7년(1381) 겨울 양산사(陽山寺)로 옮기던 날 국사로 봉하였다. 자신의 입적이 임박함을 느낀 그는 1382년 다시 소설산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23일 후학들을 불러 내일 유시(酉時)에 떠날 것을 말하고, 이튿날 새벽 유시에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

시호는 원증(圓證)이다. 중흥사 동쪽 봉우리에 탑을 세워 탑호를 보월승공(寶月昇空)이라 하였다. 사리는 양산사, 사나사, 청송사, 태고암에 분장하였다.

태고암 대웅전 우측에 있는 원증국사 부도탑비는 우왕 11년(1385) 건립되었다. 비문은 이색(李穡)이 교지를 받들어 짓고, 글은 권주(權鑄)가 썼다.

조선시대 중흥사의 변모

조선 초 이곳은 왕실의 중요한 사찰이었다. 태조는 7년(1398) 1월 도당에 명하여 중흥사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태종 11년(1411) 5월에는 승려들을 이곳으로 불러 금주하고 비 오기를 빌었다. 국행불사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중흥사는 산성 안에 있었던 관계로 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는 이곳 주지가 승군대장을 겸임하여 전국의 승군을 총지휘하는 지휘소가 설치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북한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선조 29년(1596) 3월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자 병조판서 이덕형은 이곳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려 선조에게 올렸다. 그가 살펴본 북한산성은 사면의 산세가 높고 험절하여 진실로 10여 인이 지키게 되면 적의 숫자가 수만 명이 되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이와 같이 유리한 지세를 두고 방치한 것을 매우 애석해하였다. 선조는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성이 축성된 것은 숙종 37년(1711)이다. 서울 백성들과 삼군문(三軍門)의 군사들이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이렇게 애써 축성하였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무렵 중흥사는 사세가 기울어 30여 칸만 존속하였고, 축성과정에서 행궁터로 지목되었다. 숙종 38년(1712) 11월 병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북한산성의 행궁 자리는 중흥사의 옛터만 못하니, 행궁을 다시 이곳에 옮기어 세우도록 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행궁은 중흥사 위쪽에 세워졌고, 사찰은 숙종 41년(1715) 136칸의 큰 절로 중수되었고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 휘하의 승영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산성 내 중요한 위치인 중흥사였지만 화마를 비켜가지 못했다. 1909년에 화재를 입었고, 1915년 대홍수로 남은 전각들이 유실되었다. 1916년에는 그마저 모두 불타 없어지고 한 채만 남았다. 일제는 이곳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헌병 출장소로 두었다.

태고암서 지금의 조계사로 변모

중흥사의 변천에 따라 명맥을 이어온 태고암은 총본산이 설립되면서 본의 아니게 서울 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31본산은 1937년 3월 5일 제1회 총본사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불교를 관리할 총본사의 명칭을 조선불교선교양종총본사 각황사로 하였다. 현 재단법인인 교무원은 해체하여 총본산에 귀속시키며, 각황사는 매각하여 기지 확장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밖에도 총본산건설위원, 상임위원, 그리고 고문 등을 선출하였다.

31본산의 총본사 건립은 1937년 7월 27일 기공을 시작해서 1938년 10월 25일에 준공되어 봉불식이 거행되었다. 1938년 10월 26일 열린 본산주지회의에서 사명(寺名)은 각황사가 아닌 북한산 태고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1939년 5월 22일 총독부에 신청하여 1940년 5월 인가 받았다. 1940년 11월 31본사 주지들이 모여서 종래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고 사용해 오던 종명을 '조선불교조계종'으로 개정하였다.

총독부는 1941년 4월 23일 개정된 사찰령 시행규칙을 인가하였다. 이때 제정된 태고사법은 1941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태고사 안에 종무원이 설치되어 불교인들의 여망이었던 총본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금 조계사로 불리는 것은 1954년 이후 진행된 정화운동 과정에서 바뀐 것이다.

북한산에 있던 태고사는 6·25 때 전소되어 절터만 남았다. 그 후 1968년 옛 중흥사의 석재를 이용하여 대웅전과 요사채를 복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절터만 있던 중흥사 역시 중창불사로 거듭나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당우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태고와 같은 수행자가 나와 한국불교를 중흥시키는 날이 왔으면 한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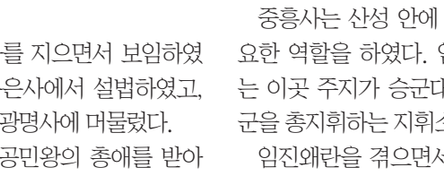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유아독존으로 함께 사는 법, '緣起'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④ 예순, 이 남자의 홀로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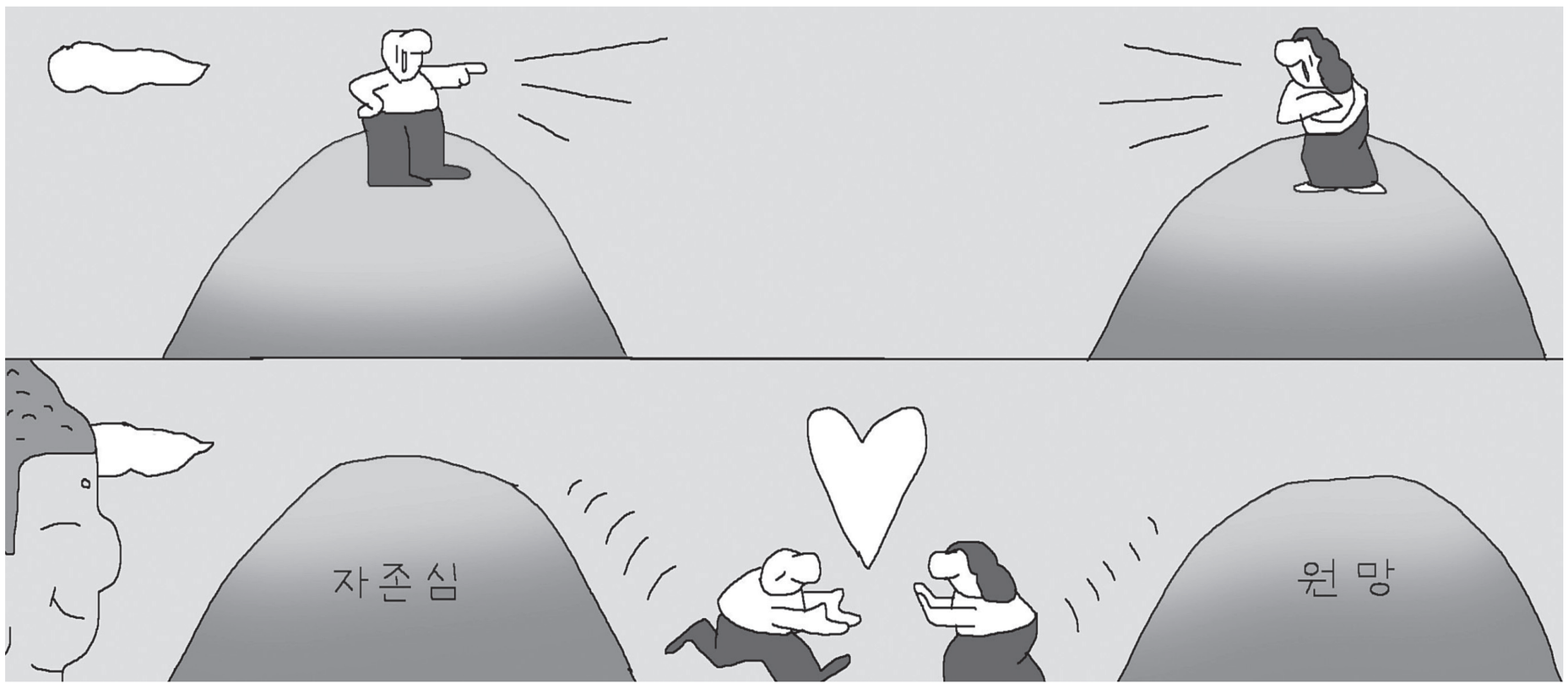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밉다.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네가 그럴 수 있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나무에서 싹이 튼 미움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냄새를 온 사방에 떨친다. 그 악취에 내 마음이 먼저 질식한다. 사랑에 잠 못 드는 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면 미움에 잠 못 드는 밤은 오로지 지옥의 불길에서 활활 타오를 뿐이다.

지난 명절에도 많은 이가 미움의 싹을 발아시켜 그 불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태우고 있지 않을까.

"남편은 시댁만 가면 마초로 돌변해 손도 꼼짝 않고 나만 시켜 먹는다."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가더니 마누라밖에 모르고 부모 보기를 남 보듯 하냐?"

"나이 마흔이 되어도 어머니 잔소리는 끝나지 않는다."

부모자식이나 부부의 질긴 인연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없었을 괴로움이다.

가족관계에 대한 예리한 시각으로 개성 있는 영화를 만들어온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말했다. 가족의 무게가 괴롭다는 독설이며, 가족이라 내다버릴 수도 없다는 역설이다.

코칭의 단골 이슈는 관계의 갈등이다.

가족이라서 생기는 미움과 원망, 가까운 사이에서 느끼는 섭섭함과 억울함, 어떤 문제든 원인을 파고들면 사랑과 미움이 한 뿌리에서 나온다.

부부 사이의 애증은 더욱 미묘하고 복잡하다. 핏줄이 아니면서 공동 운명체로 묶인 두 사람은 가까워서 더욱 멀어지는, 속 모르는 사이가 된다.

은퇴 후 달라진 아내가 밉다

은퇴 후 부인에 대한 섭섭함으로 괴롭다는 남성 고객이 있었다. 문영 씨는 은퇴하면 아내 미자 씨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리라는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는 독립했고 단둘이 여행하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서 늙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몇 달 간 아내는 그동안 수고했다며 삼시세끼를 정성껏 차리고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점차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불편해하더니 자신의 외출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다. 출퇴근 때는 몰랐는데 집에 있어보니 아내는 자신이 모르는 친구도 많고 사진이며 합창이며 동호회 모임도 많았다.

문영 씨는 그런 아내가 야속하다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무슨 비밀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 아내의 수첩이나 컴퓨터를 뒤지기도 했다. 아내는 잘도 살아왔는데 자신만 가족을 위해 오래 고생한 것처럼 지난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미운 마음도 힘들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자괴감까지 들어 이중의 고통입니다. 전 평생 아내밖에 몰랐습니다."

문영 씨는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말했다. 자신이 사랑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듯이.

부부 사이의 객관화를 위해서 코치는 서로의 대화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문영/ 내일 외출한 건데 셔츠 다림질이 안 되어 있네?

미자/ 그래요? 미리 말하지.

문영/ 빨래하고는 왜 다림질을 안 했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미자/ 뭐하는 사람? 아직도 그 소리야. 언제까지 당신 치다꺼리를 해줘야 해? 이제 다림질 정도는 당신이 좀 하면 안 되나.

문영/ 다음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예매해둘게.

미자/ 영화?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답답하게 뭘 영화관까지 가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약속 있어요.

문영/ 어딜 그렇게 매일 나다니냐?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미자/ 내가 하는 일은 다 하찮은 건가. 당신이야말로 언제까지 나만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부부란 도반, 의미 설명
정서적인 홀로서기 필요
'나'는 누군가의 수고로움

문영/ 동네 산책 다닐 때 입게 카디건 하나 사줘.

미자/ 어떤 걸로? 그냥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 사면 안돼요? 사오면 색깔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당신 까다롭잖아?

미자/ 옷 하나 사주는 것도 이제는 귀찮은 거야?

대화를 다시 들으며 문영 씨는 아내에 대한 미움이 새삼 솟아나는 걸 느꼈다.

자신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직장을 다닐 때는 군말 없이 내조하다가 이제는 귀찮은 사람 취급하다니 괘씸하고 억울하다.

나는 이 대화를 다른 사람(가능하면 여성)에게 들려준 다음 그 느낌을 들어보고 다시 코칭을 해보자고 했다.

그는 딸과 여동생에게 들려주었는데 이런 소감을 들었다.

"여전히 부인을 시중드는 아내로만 생각하고 있다. 부인의 바깥 활동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영화도 보러 갈 거냐고 묻지 않고 영화 보러 가자고 먼저 결정해 통보하지 않았나. 이제껏 아내에게 일상을 의존해왔는데 은퇴 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는지?"

문영 씨는 자신을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으로 치부하는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함께 하려는 의도가 아내를 귀찮게 하고 시중을 받으려는 태도인가.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의 할 일이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지? 문영 씨에게 부부란 남편과 아내일 뿐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삶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부부가 어떤 사이여야 하는지 새롭게 알아야 한다니 문영 씨는 혼란스러웠다. 이때부터 문영 씨의 코칭 이슈는 〈노년의 부부가 사는 법〉이 되었다.

부부란 일방으로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길을 가는 도반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6주간의 코칭 시간이 필요했다. 집안의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아내의 챙김을 받는 의존자라는 자각이 들 때 문영 씨는 섬뜩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문영 씨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스페인 순례 길을 혼자서 가볼까 해요."

문영 씨는 긴 도보 여행을 위해 매주 둘레길 트래킹을 하고 걷기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아내와의 거리두기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다.

"저 여자는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줄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정서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홀로서기를 격려하는 나에게 그는 쓸쓸하게 말했다.

"아직은 힘듭니다. 나이 들수록 아내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면 정말로 외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은 홀로 선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붓다가 깨달음 후 외친,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하다는 이 한마디는 자신만이 최고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가치만큼 타인도 귀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니, 여기에 붓다 말씀의 진리와 묘미가 있다. 즉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 단독으로 존귀하니 각기 홀로선 후에 타자와 교감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연기(緣起)의 눈으로 보면 나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존재한다. 밥알 하나도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겨져 내 몸으로 들어간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부부란 그야말로 엄청난 인연이며 연기이다. 이런 부부 사이를 동일 운명체라는 착각으로 한쪽에서 흡수하는 관계를 강요하면 건강하지 못한 악업(惡業)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진정한 연기란 각자의 단독성을 인정하면서, 네가 있어 내 존재감이 커지는 그런 사이여야 한다.

문영 씨가 순례길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처음으로 홀로 된 40여 일의 이 시간이 결혼생활 전체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고독하지만 오로지 나 자신만을 볼 수 있어서 새롭습니다. 나도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행복하네요."

문영 씨 부부가 천상천하유타독존(天上天下唯他獨尊)하기를!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나와 세상을 바꾸는 불교, 베품과 자비·지혜의 가르침

2019학년도 **불교학과 54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목요일오후2시]
저녁반 [매주목요일오후7시]
통신반 [녹음CD배송 (동산불교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음원으로 강의 청취 가능)]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정토사상 6.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법산 경일대종사(학장),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정성준 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1) 8. 불교문화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2) 11. 반야사상 12. 유식사상
	교수진	이미령 교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묘주스님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저녁반·통신반 각 30명)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1통, 반명함판사진2매, 입학금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19일 ~ 3월 6일
■문 의 : (02)732~1206~8
*2년 과정 졸업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개강
- 행복한 화엄경 3월 5일(화) 오후 7시
- 유 마 경 3월 5일(화) 오후 8시 20분
- 대 반 열 반 경 3월 7일(목) 오전 11시

불교 관련학과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5일(화)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 3월 6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 3월 9일(토) 오후 2시/4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 이지만 소리가 월등하고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사찰에 시설이 되었던 시스템을 차에 그대로 재현하였으니 염불 인생들은 이 소리에 내 염불을 한 번 실려 보시지요.

▣ 본품은 염불전용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A/S는 본사의 생명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청 락

모든 것은 상대적… 절대는 없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④ 무아와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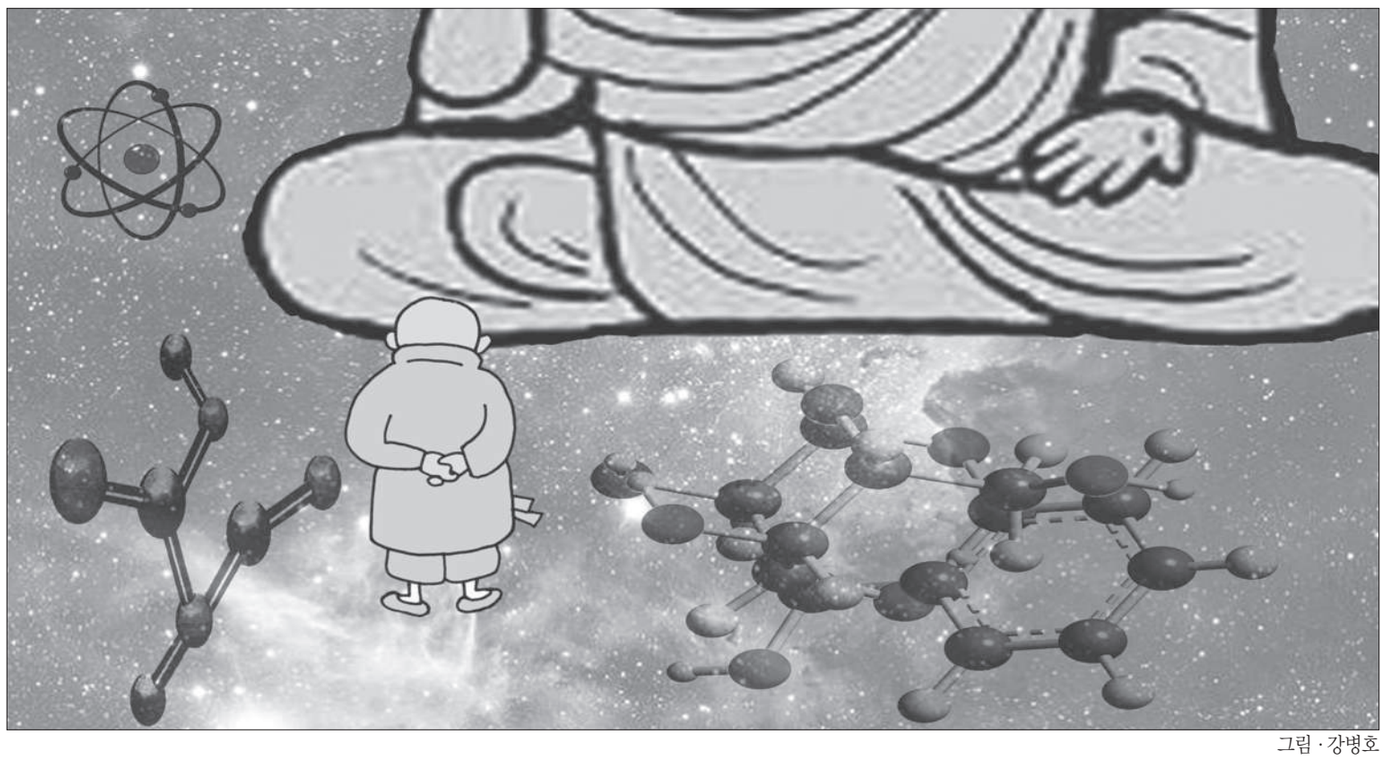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불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불교는 2600년의 역사 속에서 본질은 자꾸만 작아져 모래알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겹의 옷을 입은 상태로 변질되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는 방생을 하든지 영가 천도를 하든지 모두 불교가 될 수 있다. 기복도 종교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본질을 모를 때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것은 불교가 아니라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교의 본질을 알 때는 어떤 껍질을 덮어 쓰고 있더라도 껍질은 종교의 본질을 포함한 더불어 상생하는 그 종교의 사회성이 될 수 있다.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속성인 무아와 무상의 개념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해를 해야 하고 체득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완성되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무상에 대한 인식

무상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뚱이 하나만 보더라도 계속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는 변화의 종착역은 멸이다. 죽고 없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무상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무상을 알 수 있다.

무상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해 고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이고 무아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가 있다는 착각만 하지 않으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탐 · 진 · 치가 생기는 것이다.

무아의 인식

그렇다면 무아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무아의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독립된 실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라고 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애욕이 생긴다. 그 관계의 흐름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무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겠다. 존재를 기본적으로 나누어 보면 책상과 볼펜 같은 생명이 없는 물체와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있다.

존재는 무생물인 물질과 생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명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살게 하는 기본적인 생명작용과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이 이 우주의 모든 존재라고 하면 동시에 모든 존재가 무아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우리 몸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눈(眼)이 있어 대상을 볼 수 있고, 귀(耳)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鼻)가 있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舌)가 있어 맛을 느낄 수 있다. 몸(身)이 있어 좋고 싫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의지(意)가 있어 눈 · 귀 · 코 · 혀 · 몸으로 느낀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우리 육신은 기본적으로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인 6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은 몸뚱이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체이다. 의는 우리의 정신작용이며, 우리의 인식이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은 없애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지되고 인식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 불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다.

미시세계에서 무아의 인식

무아의 개념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독립된 실체가 없다고 했을 때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미시적인 세계도 있을 것이고 거시적인 세계도 있을 것이다. 미시적인 세계에서 물질은

무상 · 무아 인식 완성되면
바로 견성… 부처 되는 길

공간 속 모든 것 서로 연결
시공간에 절대 없어 '상대적'
상대성 무상 · 무아 이해 도움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인 분자가 있다. 그 분자 알갱이를 더 나누어 보면 원자가 있다. 원자를 더욱 더 쪼개면 쿼크라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있다. 지금은 쿼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힉스입자까지 설명되고 있다. 신의 입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힉스입자이다.

여기 물이 있다. 물은 어떤 원자로 이루어졌는지 보면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로 이루어진 'H_2O'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연결 되어 물이 된다. 그럼 이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면 수소하고 산소가 없어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은 없어진다. 분명하게 산소와 수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물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니까 없어진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는 생멸의 원리가 설명된다. 이 생멸의 원리와 생멸의 구조는 6근 · 12처 · 18계 연기를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나온다. 생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끊어져버리면 산소와 수소가 그대로 있어도 물은 없어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멸이다.

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져 단절된 상태이다. 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수소와 산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세계의 미세한 입자에서 무아의 관계를 살펴보니 독립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독립되었을 때는 멸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주에 모든 것은 연관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연관되어 존재할 때는 물이 그냥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물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우주에서 무아의 인식

우주의 거시적인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예전에는 지구가 이 우주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조그마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태양계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천체망원경으로 살펴보니 태양계라 하는 것도 은하계의 구석에서 돌고 있는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이 우주에서 볼 때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의 입자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이 은하계 속에는 약 1000억 개가 있다.

현재까지 천체 망원경으로 인식한 우주에는 이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약 1000억 개 가량 존재한다고 한다. 무아와 무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용어로 바꾸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아와 무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있다 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느낄 수 없다. 공간의 움직임이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동쪽 하늘을 보면 해가 떠오른다. 또 저녁에 서쪽을 보면 해가 진다. 수만 년이 지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내가 만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우주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것으로부터 시간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속에서 시간이며 우주 속에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지구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고 하자.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km를 달린다.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오는데 700년이 걸린다.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빛의 속도이다. 30만km로 달리는 빛이 700년을 달려야 우리에게 도달한다. 북극성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와 북극성의 중간 400광년 위치에서 임의의 사람이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오늘이 2019년 2월 25일 저녁 7시이다. 지금 저 밤하늘에 북극성이 폭발했다.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이 북극성은 2019년 2월25일 7시에 폭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북극성은 700년 전에 폭발한 것이다. 북극성에서 볼 때는 700년 전인 1319년 2월 25일 7시에 폭발한 것이다.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북극성을 쳐다보았을 때는 1719년 2월 25일 7시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주에서 시간을 인식할 때 절대적인 시간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상대성의 개념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된다. 우리는 물질계를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무아를 이해를 할 것인가? 하나의 물 분자를 생각해보더라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 연관이 끊어지면 물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놓여 있는 집합체가 모여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을 잘 이해하면 무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뉴턴의 만유인력을 생각해보자. 하나가 움직이면 그 힘이 다른 곳에 끝없이 미친다. 모든 물체는 다 연관되어 힘 속에서 함께 놓여 있다. 또 하나가 힘을 내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턴이 밝혔듯이 바로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힘이 작용하고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정신세계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함으로써 무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자비 광명이 쏟아지고 그 자비 광명을 인식하면 열반적정이 된다. 이제까지의 설명으로 무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공간과 시간은 하나이며 한 점의 확산이 공간을 이루고 이 움직임을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원래 시공간은 하나인 것이다. 이것이 물들기 전의 성품을 본래성품이라 하며, 청정이라 한다. 청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청정법신이다. 그래서 본래성품은 일심이며, 청정이며, 빛일 뿐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권공
원서교부 | 2019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보경사 불교전통의례전승원
수강생 모집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가 불교전통의례전승원 개원 –

▣ 개 강 : 2019년 3월 5일(화) 오후1시
▣ 강의내용 : 불공의식, 범음범패, 사물, 바라
▣ 강 주 : 대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전수자)
▣ 대 상 : 조계종 비구.비구니 스님과 범종단 스님, 재가 불자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포항)
054)262-1117 / 010-4530-7444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여래의 '첫' 설법



新 불교사자성어

⑥ 초전법륜(初轉法輪)

'최초로 법(진리, 가르침)의 수레바퀴(法輪)를 굴리다' 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후 처음으로 법을 설한 것' 을 뜻한다. 동의어로 '법륜상전(法輪常轉, 법륜이 항상 이어지다)' 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29세 때 예약된 왕위를 버리고 출가, 입산했다. 드디어 6년 만인 35세 때 니르바나(열반)의 경지, 곧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것은 '고통으로 부터 해탈하는 방법' '연기의 법칙'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의 이치' 등으로 이것은 인류 정신사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대중에게 설해도 좋은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했다. '과연 내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경전에서는 '심오한 진리를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서(……)' 라고 전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이나 진리, 사상은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21일간 깊은 고뇌와 사유 끝에 깨달은 진리를 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고귀하고 심오한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안타깝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연기의 법칙, 니르바나의 세계, 중도의 이치 등 진리를 안다면 '불사(不死)의 경지'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불사(不死)의 경지' 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경지' '죽음을 초월한 경지' 를 말한다. 그것은 곧 해탈로서 '삶의 애착' '생사의 애착'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진리를 설할까?' 고민했다. 그 결과 과거에 자신과 함께 고행과 수행했던 다섯 명의 비구(5비구)가 생각났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오늘날 4대 성지의 하나인 녹야원(초전법륜지)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중도의 이치' 를 설했다. 그들은 극단적인 고행주의자였다. 그들에게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苦行)은 무의미하다는 것,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최초로 5비구에게 '중도(中道)의 이치' 를 설했는데, 이것을 '초전법륜(初轉法輪)' 이라고 한다. 법륜(法輪)은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붓다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또 그것을 '법륜상전(法輪常轉)' 이라고도 하는데, 조석 예불할 때 축원문에도 나온다.

다음은 초전법륜경이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와라나시 근처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한 감각적 욕망,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고행(苦行)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 正道)를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 여래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중도를 통하여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지나친 고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도에 이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가 나온다. 초전법륜경에는 처음으로 중도와 사성제를 설한 것으로 나온다.

5비구는 콘단냐(교진여) · 아사지 · 마하나마 · 밧디야 · 바파로 붓다가 성도하기 전에 함께 수행하였고, 성도 후에는 최초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初轉法輪) 부처님께 귀의한 이들이다.

지금 인도의 국기가 바로 법륜이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인도의 국기는 주황색, 하얀색, 초록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 줄무늬 가운데에는 24개의 축을 가진 파란색 법륜이 그려져 있다. 주황색은 용기와 헌신을,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를,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을 의미하며, 파란색 법륜은 마우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소카의 사자상에 새겨져 있는 법륜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봉이 열반당에 들어야 하는 까닭은?



격절록 강설

⑦ 제 2칙 설봉보청(雪峯普請 · 설봉의 대중울력)

[古則과 着語]

擧, 雪峯一日普請 自負一束藤 (勞而無功) 路逢一僧 峯便拋下 (力盡神疲) 僧方擬取 峯便踏倒 (下坡不走 快便難逢) 歸舉似長生 乃云 "我今日踏這僧快" (少賣弄) 生云 "和尚替這僧 入涅槃堂始得" (鬧市裏要一箇半箇) 峯便休去 (可惜放過)

설봉(雪峯, 설봉의존, 822~908)이 하루는 대중 울력을 하면서(普請) 스스로 등나무 한 속(束)을 짊어졌다. [애는 썼지만 그 보람은 없다.]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나자, 설봉이 바로 던져버렸다. [힘을 다 썼으니 정신이 피로하겠군.]

그 스님이 막 주우려는데, 설봉이 바로 밟아 넘어뜨렸다. [언덕 아래로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쾌속선을 만나기는 어렵다.]

돌아가 장생(長生, 장생교연, 생몰 연대 미상)에게 (앞의 일을) 전하고는, 말했다.

"내가 오늘 이 스님을 통쾌하게 밟아버렸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장생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이 스님을 대신해서 열반당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 바닥일지라도 (이런 괜찮은 놈이) 한 명 아니 반 명은 꼭 있다.]

(그러자) 설봉이 바로 쉬었다. [애석하다. 놓쳐버렸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長生大似東家人死 西家助哀. 也好與一踏" (闍黎也須急着眼始得).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장생은 마치 동쪽 집 사람이 죽었는데, 서쪽 집 사람이 슬퍼하는 것과 같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밟아버렸어야 했다." [스님(설두)이야말로 급히 착안(着眼)해야 한다.]

[評唱 1]

師云. 只這雪竇合喫多少 如今且放過一著. 雪峯為一千五百人善知識. 當時 日日普請 運水搬柴 豈似如今兄弟 端坐飽食 不知慚愧. 不見 雲門問僧 "甚麼處來" 僧云 "負柴來" 門云 "閑口" 且道 他雲門意 又作麼生. 諸人試體究看.

다만 이 설두가 방망이를 좀 몇 대 맞아야 맞는데, 지금 또 한 수를 놓쳐버렸다. 설봉은 1,500명의 선지식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날마다 대중울력으로 물 긷고 땔나무를 날랐으니, 어찌 요즘 형제들이 단정하게 앉아 배불리 먹고는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것과 같겠는가!

보지 못했는가! 운문(雲門, 운문문언, 864~949)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스님이 말했다.

"땔나무를 지고 왔습니다."

운문이 말했다.

"입 닥쳐!"

자, 말해보라! 저 운문의 뜻(雲門意)은 또 무엇인가? 모두들 시험 삼아 자세히 고찰하고 연구해 보라.

* 설봉(雪峯, 설봉의존, 822~908)
당나라 때의 승선사로,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출신. 12세에 포전(蒲田) 옥윤사(玉潤寺)에서 출가하고, 여러 지역을 편력하다가 덕산선감(德山宣鑑, 780~865)에게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870년에 복건성 복주(福州) 상골봉(象骨峰)에 들어가 작은 절을 지으니 희종(僖宗)이 응천(應天) 설봉사(雪峰寺)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⑦ 믿음 편 7

불교는 자력신앙인가 타력신앙인가?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다. 이러한 유한한 실존 앞에 인간은 괴로움을 느끼고 한없이 작아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영원한 삶을 꿈꾸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 꿈이 실현된 상태를 종교적 전통에 따라 구원, 혹은 깨달음 등으로 불린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다.

종교의 목적인 구원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자력신앙(自力信仰)과 타력신앙(他力信仰)이 그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 자력신앙이라면 절대적 힘을 가진 타자(他者), 즉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타력신앙이다. 기독교를 위시한 서양종교가 타력신앙이라면,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는 자력신앙에 가깝다.

종교의 목적인 구원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깨달음은 어떤 절대적 존재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다. 석가모니 붓다는 이를 직접 체험하고 '생로병사' 라는 인간의 실존적 괴로움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신앙의 모습은 그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의 탄생게와 마지막 유훈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붓다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친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天上天下 唯我獨尊)"

흔히 탄생게로 알려진 이 선언은 사실이라기보다는 불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 말은 나 혼자 잘났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 '아(我)' 라는 말을 잘 알아야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나(我)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매우 존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한 위대한 인간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인간을 위대하다고 했을까? 바로 종교의 목적인 구원을 인간 스스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추고 있다는 불성사상이나, '여래의 씨알(如來藏)' 이 있다는 여래장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는 나고 죽는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력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자력신앙의 모습은 붓다의 마지막 유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흔히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으로 알려진 붓다의 마지막 유훈은 깨달음이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정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증명해보인 인물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며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철학이나 종교가 있을까 싶다. 붓다의 탄생과 열반에서 확인한 것처럼 불교는 전형적인 자력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절대타자인 아미타불께 의지하여 정토에 낳고자 하는 타력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한 종교 안에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졸업 의미 새겨 삶 변화를”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58명 배출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7일 ‘제31회 불교학과 및 제26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곡성 통명사 주지 법중 스님과 전북불교대학 김인석 신임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교 31명, 법사과 27명이 배출됐다.

졸업식에서는 전법사고시를 통과한 강숙자 불자 등 9명에 대한 전법사 자격증 수여와 1년 동안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온 학인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창구 학장은 식사를 통해 “오늘 아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는 분들의 앞날을 축원했다”며 “업장을 소멸한다는 졸업의 의미를 되새겨 참회발원의 삶으로 진짜 업을 마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효 스님은 격려사에서 “내 옷이나 마음이 변하더라도 ‘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두로, 진정한 ‘나’를 찾아 성불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인석 총동문회장은 “자신을 찾기 위해 모여서 공부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불자다운 삶을 통해 포교의 발걸음을 내딛은 졸업생들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발원한다”고 축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화인, 실천하는 자세 갖추길”

동곡학원 선화여고, 제31회 졸업식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교육도량’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교장 이희명)의 제31회 졸업식이 2월 14일 교내 강당 동고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 은해사 국장단 스님과 각 말사 주지 스님, 지역기관장 및 단체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수연 학생 외 127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학교장상을 비롯해 특별상 등이 수여됐으며, 장학금 및 공로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은 “그동안 선화여고가 지역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게끔 사랑과 자비로 열심히 가르치고 보살펴준 이희명 교장 선생님과 여러 교직원 선생님, 학부형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큰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선화인들은 천만가지 말과 마음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함을 가슴에 새겨주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리 사회 속 화쟁 갈등 조정에 필수”

Interview

제5기 조계종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월 20일 5기 위원단 출범
스님 · 재가자 총 23명 구성
대한민국 야단법석 등 추진

“부처님 가르침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화쟁은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뛰어넘죠. 그래서 〈보왕삼매론〉처럼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이를 밝히는 것이 아닌 억울함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그게 화쟁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0년 6월 사회 갈등현안을 부처님 가르침 아래 풀어내기 위해 조직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월 20일 제5기를 출범했다. 5기 위원장을 맡은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前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 사진)은 화쟁위원회의 가치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인터뷰 말머리를 풀었다.

호성 스님은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재직시절,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으로서 백년대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는 등 한국불교 위기를 해소하는 데 힘썼다. 화쟁위원회는 백년대계본부 산하기구로서 각종 사회 갈등현장에 나서 중재활동을 펼쳐왔다.

호성 스님은 1기부터 4기까지 화쟁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화쟁의 가치가 사회에 더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도법 스님께서 앞서 8년 가까이 위원장을 맡아 건실한 밑바탕을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밑바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화쟁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몸으로 뛰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화쟁위원회로 이끌겠습니다.”

호성 스님은 또한 종단 외부의 갈등현안뿐만 아니라 종단 내부의 일에도 화쟁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위원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거쳐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화쟁위원 간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3월 중 마련하고, 이후 집중토론을 하며 위원들의 고견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종단 내 · 외부를 가릴 것 없이 종단과 사회가 화합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겁니다.”

화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갈등현안 중재활동 △원효순례 △화쟁독후감 공모전 △화쟁행자 양성사업 △대한민국 야단법석 등의 회의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확정했다. 화쟁위는 또한 부위원장에 법인 스님(대흥사 수련원장)과 황도근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화쟁위원회 5기 위원단은 호성 스님과 법인 스님, 황도근 교수를 비롯해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삼정사 주지 원소 스님,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심적정사 주지 혜범 스님, 곽병찬 前한겨레신문 대기자, 김선아 다큐멘터리 감독,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사 북칼럼니스트, 신호승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이사, 이채은 前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조형일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최영기 前한국노동연구원장,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많은 이들 사찰문화 경험하도록”

겨울 사찰 콘텐츠 제작한
강산 나투다픽처스 대표



“불자가 아니어도 영상을 보고 사찰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제 서원입니다.”

사찰 탐방 콘텐츠 ‘아이고절런(IGO절RUN)’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 강산 나투다픽처스 대표(29 · 사진)가 최근 ‘사찰 트래블-겨울 사찰여행 Best5’ 영상 콘텐츠를 내놨다. 강 대표는 이번 사찰여행 Best5에서 평창 월정사, 부안 내소사, 남해 보리암, 인제 백담사, 화순 운주사를 다뤘다. 각 사찰마다 드라마 도깨비 패러디를 비롯해 데이트 코스 소개 등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강 대표는 “아이고절런에서 사찰 본연의 특징을 다뤘다면 월별, 계절별 사찰의 특징과 볼거리 등을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다. 향후 3월에 가볼만한 사찰 등 다양한 사찰 소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불교계 대표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의 연출과 편집 등 모든 작업을 도맡아 한다. 강 대표 콘텐츠는 특히 B-boy 활동을 한 그의 톡톡 튀는 감각이 담겨 있다.

강 대표는 ‘사찰여행 프로젝트 · 아이고절런’을 시작으로 다 같이 사찰여행을 가는 ‘위고절런(WEGO절RUN)’,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불리버리(불교+딜리버리)’, 스님의 청년들에 대한 조언을 담은 ‘선문선답’, 불교 교리강좌인 ‘불경’까지 여러 콘텐츠들을 제작했다.

강 대표는 “처음 사찰에 갔을 때 그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매료됐다.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취미로 영상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딱딱한 불교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불교, 그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었다. 앞으로는 월별 특색 있는 주제로 사찰을 소개하고자 한다. 3월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사찰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보름 아래 무사안녕 기원

대구불교사원연합회,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대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선지)는 2월 19일 기해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39회 정월대보름 방생법회를 포항 칠포해수욕장서 개최했다. 높이 10m 달집에 소원지를 달며 시작된 행사에서는 방생기원제와 소원풍선 날리기,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회장 선지 스님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등 사부대중 5000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화엄문도 화합정신 기리며”

구례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 추모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2월 20일 화엄문장 명선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주지 덕문 스님 등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엄문도 합동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근대 화엄사 중창조인 도강 · 도천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에게 다례를 올리고 부도탑을 참배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73기 사관생도 임관 축하법회

진해 호국사, 해군사관학교 불자생도들과



진해 호국사(주지 만소)는 2월 19일 해군사관학교 내 호국사에서 제73기 해군사관학교 불자 생도들의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창원시불교연합회장 도홍 스님, 황기철 前해군참모총장, 신승민 호국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3기- 수강생모집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 2019년 양력 3월 8일 입교시작
- 처음 입학시에만 입회비 20만원

수업형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만 수업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내용
아침예불 / 종성 |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 천도재 (49재의식)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도량게 | 다게

교육시간표 (매주 금요일) *수업은 시간강사 개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오전
09시 | 49재 의식 | 문곡스님
10시 | 49재 의식 | 문곡스님
11시 | 바라춤 연습 | 문곡스님

오후
1시 | 아침예불 | 법원스님
1시 | 태평소 | 시우스님
2시 | 육임/명리 | 해각스님
3시 | 귀장술 | 원기스님

교육장소 문의 : 진효 010-5306-0856
- 봉운사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고은리)

각종 행사 문의
| 회장 | 도연 010-8249-1259 | 강주 | 문곡 010-3727-0870 | 부회장 | 일구 010-2370-295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 연 合掌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현생의 十大弟子를 모십니다
“사는 동안 행복한 길, 몸 버린 뒤에도 행복한 길”

제방의 스님들께 알립니다. 가칭, 수행자 공동체 프라즈나院에서는 불교 개혁과 불국토 건설을 기치로 현생의 참수행자 열 분의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쇠퇴하고 타락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는동안 출가자로서의 본분과 불교 부흥의 사명을 다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단의 틀을 깨고, 생사를 함께 할 덕 높고 뜻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자격
① 40세 이상의 청정 비구, 비구니
② 사홍서원을 가슴에 새겨 당당하고 정직한 자
③ 승가화합, 수행, 포교에 전념 할 자

기타
- 현재부지 540평
- 불사 공동 등기. 합의 운영
- 노후 보장

동참금 : 팔천만원(가진 게 없으면 그냥 오셔도 무방)
동참금의 용도 : 개인요사채건축 및 납골당불사

문의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054 천인사
- 종무실 054)933-7313
- 정각스님 010-7313-4566
- 정혜스님 010-6474-2739

수행자공동체 프라즈나院

사찰(양도) 대구인근 경북 성주 소재. 220평(실사용면적 약300평). 법당, 요사채, 황토방, 명상실, 방3, 공양간1, 욕실3, 기타. 양도가 2억

스님카페(월세) 성주시내 최요지. 30평. 법당, 차담실, 상담실, 주방1, 욕실2. 현재성업중. 숙식가. 월세 500/35. 시설비 1500만원

티베트 비구니 권익 신장 '급변'

여성 불교학 박사학위 '게셰마' 수행자 급증

박정현 객원기자

카트만두에 있는 티베트 불교 비구니 사원 카초 가큐일링(Khachoe Ghakyil Ling nunnery, '콘파' 라고도 알려짐)에는 매우 새로우면서도 까다로운 게셰마(Geshema) 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스님들이 몰린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 최대 종파인 겔룩파(Gelug) 전통에서 비구니 불교 지도자 육성을 위한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게셰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여성 출가자 최고 학위, 즉 불교학 박사다. 여기서 '마' 는 티베트어에서 '여성' 을 뜻하는 단어다. 티베트 불교는 과거 남성들만 박사학위를 얻을 수 있었다. 1995년만 해도 비구니들이 불교학 교육에 입문하는 것조차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가 2012년 여성 승려에게도 이를 허용했다. 이후 비구니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이는 남성 중심의 불교 역사가 변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은 2월 7일 티베트 불교 비구니 승단을 체험한 제니퍼 라도느(Jennifer Ladonne)의 기행기를 소개했다. 제니퍼는 티베트 비구니 문화를 알리기 위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으로부터 초청된 32명의 순례자 중 한 명이다.

제니퍼는 "가사를 두른 600명 이상 비구니들이 헌시, 축하, 토론을 위한 장인 사찰에 모였다. 그 사이에서 나와 다른 5명의 서양 순례자들은 합장을 했다"며 "의식이 끝난 후, 우리는 인도 · 네팔 주변의 9개 비구니 사찰로부터 온 600명의 비구니들이 자신들의 불교학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한 달간 모여 펼치는 연례 불교학 토론회에 초대됐다"고 설명했다.

비구니사원 '콘파' 인산인해
겔룩파 전통서 지도자 육성
박사학위 비구니 지속 배출
수학 · 시험 기간만 약 20년

제니퍼는 "비구니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4대 달라이 라마가 이를 허용한 후 맹렬한 기세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제니퍼가 전한 현장 분위기는 '활기' 와 '축제' 그 자체였다. 15명의 비구니 스님이 차례로 일어나 불상 앞에 절을 올린 뒤, 넓은 반원을 만들어 왼발을 구르며 불경을 외웠다. 반대편 토론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도전장' 이다.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곳곳에 보이는 7살 정도의 어린 비구니 스님들도 토론에 집중했다.


제니퍼 라도느는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카초 가큐일링에 순례자로 초청돼 연례 불교학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트라이시클

제니퍼는 "여승들에게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들은 단시간에 티베트 불교 여성 교육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치켜세웠다.

게셰마 학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족히 약 17년의 수학 기간이 필요하다. 이후 시험을 치르는 기간만 4년이다. 2012년 게셰마 제도가 도입된 후 약 3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2016년에는 20명의 비구니 스님이 한꺼번에 게셰마 학위를 취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티베트 전통의 미국인 비구니 스님이자 1987년 코판 사원에서 불교에 입문한 에이미 J 밀러 스님은 카초 가큐일링 사원을 "비구니들의 옥스퍼드이자 캠브리지"라고 표현하며 "비구니 스님들은 '배움' 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내가 20~30년 전 알았던 '온순' 한 여성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제니퍼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은 점점 신장하고 있다. 이들은 후세의 비구니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 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판 사원에서는 불교 철학뿐만 아니라 영어, 네팔어, 티베트어 등도 가르친다.

이와 관련 티베트 비구니 교육 프로젝트 미국 지부의 리사 파머 사무총장은 "여성 자치를 위해 견실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비구니들이 자신들의 기관을 운영하고, 미래 성공과 확장 모델을 창조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 "이라고 강조했다.

캔버라 佛心 다질 최초 불탑 '우뚝'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 발원, 보리수 묘목 이운

호주 캔버라에 최초의 불탑이 완성돼 화제다. 지난 2월 16일 호주 '캔버라 타임즈' 는 수도 특별자치구(ACT)에 처음 조성된 불탑에 대해 보도했다.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탑은, 스리랑카 최고의 성지인 아누다라푸라의 불탑을 본 따 조성됐다. 3년에 걸쳐 조성된 불탑은 스리랑카 불교사원의 경내에 자리 잡고 있다. 탑을 설계한 인다수마나 스님은 "내가 배운 기술로 여기 불탑을 조성하게 돼 행복하다"며 탑이 무사히 완공된 것에 대한 기쁨을 보였다.

캔버라 타임즈는 현재 ACT 내에 불교사원이 몇 곳 소재하지만, 불탑을 조성해 모시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다. 현재 ACT에서는 스리랑카 사원에 이어 티베트 사원에서도 불탑을 조성하고 있다.

불탑 조성위원회의 나말 가마지 부회장은 "조성에는 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억 원)가 소요됐다. 그러나 사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보시로 완공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이주민들 가운데 금전적인 지원 대신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들을 보시한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어느 가정에서 벽돌을 대신 올렸다는 소문이 나자, 수백 개의 벽돌을 가져와 보시한 이도 있다"고 나말 부회장은 전했다.


최종 작업 중인 불탑과, 설계자인 인다수마나 스님. 사진출처=캔버라 타임즈

또 조성위원회는 300구의 원불을 스리랑카에서 조성해 각 300호주달러(한화 약 25만원)에 권선을 진행했으며, 모두 원만히 회향됐다고 발표했다. 300구의 원불은 모두 새로 완공된 불탑에 모셔질 예정이다.

이번 불탑의 완공에 기해 스리랑카의 아누다라푸라에서 보리수 묘목도 이운해 왔다. 아누다라푸라의 보리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의 아들 보리수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여법한 도량을 위해서는 불상, 불탑, 보리수의 3가지를 갖춰야 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종교 말살' 수준 中 불교 제재

칭하이성 자치구, 사찰서 티베트어 교육 금지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인 중국 칭하이성(青海) 지역의 한 자치구가 불교 사찰에서의 비공식 티베트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2월 18일 ABS-CBN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는 겨울방학 동안 승려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티베트어 수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중국 내 티베트인 사이에는 사찰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티베트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다. 중국 당국의 종교 · 문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도 티베트 학생들이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고 ABS-CBN뉴스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행위가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사찰이 교육시설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 같은 비공식적 수업이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국 조치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며, 특정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찰과 승려들은 법에 따라 처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헌법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와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중국화' 에 의해 종교활동을 펼칠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인권감시기구 중국지부 관계자는 "티베트어 비공식 교습을 없애겠다는 당국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화적 인권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시 사례의 사후적인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는 추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위구르족 및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중국화에 따른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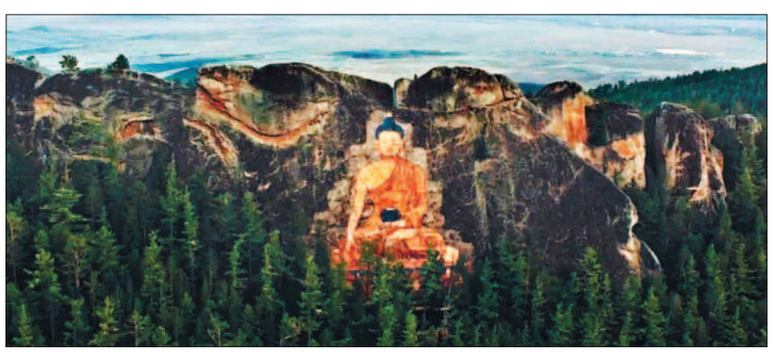
러시아 최대 채색 마애불 조성

부랴트 공화국 대형바위에 불교 복원하며 불상 조각

시베리아의 높은 바위에 부처님이 나투셨다. 33m 높이의 채색 마애불은 지역 불자들에겐 신앙의 거점이자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지난 2월 16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는 러시아에 세워진 특별한 불상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의 부랴트(Buryat) 공화국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 몽골계 주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다. 러시아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부랴트 주민들은 금지됐던 불교를 복원하기 위해 힘써왔다. 파괴된 사찰들이 복원됐고, 젊은 스님들은 인도로 유학을 떠나며 불교가 점차 부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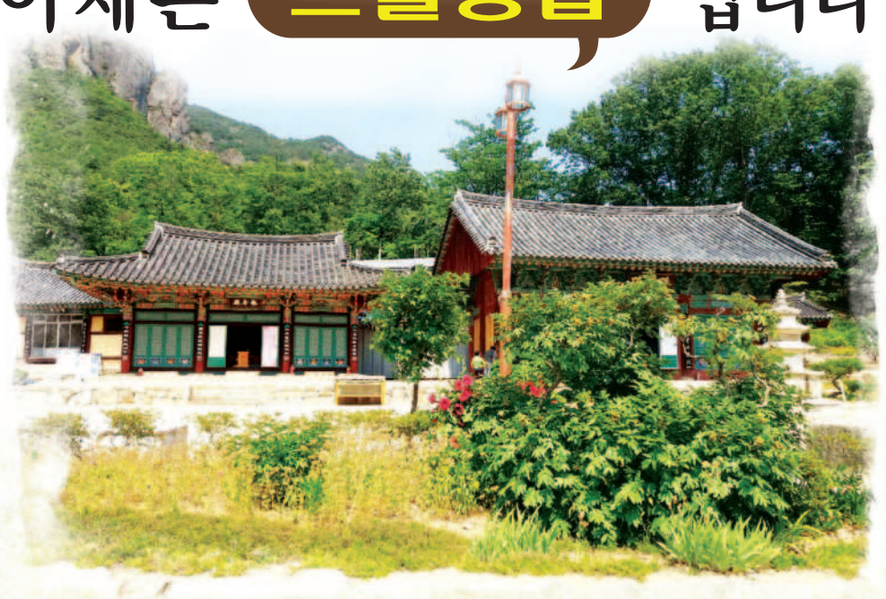
부랴트 공화국의 동부, 코린스키(Khorinsky) 지역의 바얀골(Bayan Gol) 숲에 있는 바얀 콘고르(Bayan Khongor)바위는 오래전부터 성지로 여겨져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2015년에는 바위 앞에 불상과 탑 3기를 모신 작은 법당이 조성됐다.


바얀 콘고르(Bayan Khongor) 바위에 새겨진 높이 33m의 석가모니 마애불.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그러나 바얀골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바위 자체에 부처님을 조성하기로 결의했고, 불교지도자인 옐로 린포체에게 상의했다. 옐로 린포체는 은사인 둘바 함보 린포체가 부랴트 출신인 것을 인연으로 1993년부터 부랴트의 수도 울란우데에 강원을 세우고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옐로 린포체는 바얀골 주민들과 상의하고, 직접 바얀 콘고르 바위를 순례한 후 석가모니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자연환경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주기 위해 마애불은 음각으로 윤곽만 새겨서 채색하고, 채광을 위해 바위의 정상부분만을 제거했다. 마애불은 2016년 9월 10일에 옐로 린포체를 법주로 점안식이 봉행됐으며, 당시 러시아 각지에서 몰린 4천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다.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불상은 33천을 상징, 33m 높이로 새겨졌다. 옐로 린포체의 시자인 텐진 스님은 "처음엔 이렇게 큰 불상을 조성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바위를 실측하는 과정에서 바위의 높이가 55m인 것이 밝혀졌다. 그 후에 회의를 걸쳐 33m의 불상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마애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보통 불상이나 탑은 남쪽을 바라보게 조성한다. 그러나 이 불상은 특별히 모스크바와 다른 러시아의 대도시들을 바라보게 조성했다. 이것은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연재해가 사라져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불상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8기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 암기가 아닌 원리 위주 공부, 전 과정 마스터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과학화된 역학, 현대사주명리학 마스터, 검증 가능한 작명법, 성명학 마스터
• 명리진로적성 상담자 자격증 취득(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선천적성 및 성공시기 분석 용이
• 왕초보도 1년이면 OK,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 개강 : 3. 6(水) 부터 매주 수 18:30 ~21:00 (1년 과정)

주임교수 석하(奭廈)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 재)하원정미래학회, 한국성명작명학회(KNS) 회장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회장
•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및 국제미래학회 동양학 위원장
•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및 풍수리지(+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성공과 실패 시기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유튜브 채널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 02-585-0079
자연과학 풍수지리, 풍수도 논리로 푼다.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제5기
• 대한민국 풍수지리학계 큰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 소재학 교수, 지도교수 : 최명우 교수, 정경연 교수
최병용 교수, 세준 교수, 지종학 교수, 노승우 교수
•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안나오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원리 위주 공부
• 개 강 : 3월 11(月)부터 월 18:30 ~21:00 (1년 과정)

질문이 날린 가벼운 잽, 한번 맞아보자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④ 세 번째 워밍업

'세 번째 워밍업' 은 내 몸과 마음의 안쪽을 저인망처럼 훑어 올리는 글쓰기이다. 나는 세 번째 워밍업 주제들을 만들기 위해 죽마고우를 위시하여 긴밀한 인연 18명의 남녀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요지는 이렇다.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주제 다섯 가지만 순위별로 적어서 답신해 주시면 고맙겠소. 1순위 사랑, 2순위 돈, 3순위 명예… 이런 방식으로 말이오. 물론 순서나 주제는 그대 마음대로 하시구려."

24시간 안에 그들로부터 답신이 당도했다. 그 중에는 '이 질문 덕분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네' 라는 내용도 있었다. 18명 중 총 16명에게서 답변이 왔다. 2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생각해볼게' 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나로서는 그런 내용마저도 귀중한 내면 뉴스였다. 고민 끝에 '모르겠다' 고 토로하는 중년 남성의 얼굴을 떠올려보라.

나는 그들의 답신을 토대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제부터 순서대로 정리했다. '세번째 워밍업' 은 이런 과정을 거쳐 순위가 정해졌다. 내 인연들이 성의껏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삶의 1순위는 '돈' 이었고 2위는 '사랑(성)' , 3위는 '인연' 이었다. '죽음' 이나 '신념, 가치관' 은 18명 중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직권으로 '죽음' '신념, 가치관' 이라는 주제를 투입했다. 그리하여, 글쓰기명상 창안자의 직권 상정 2가지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주제가 '세번째 워밍업' 의 범주가 되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부속 질문들을 배치했다.

16명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건 위험하다. 같은 논리로, 1순위 '돈' , 2순위 '사랑' , 3순위 '인연' 이라는 것을 보편적 순서로 간주한다면 이 또한 문제 있다. 나의 지인들이 '돈' 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올렸을 때 나는 웬일인지 당혹스러웠다. 혐오와 배반감 같은 감정이 내 안에서 얼비치기도 했다. 돈과 당혹과 혐오와 배반감. 이것이 혹시 돈에 대한 내 무의식적 관념 아닐까. 아무튼, 내 삶의 중요도는 친구들이 보내온 순서와는 다르다. 당신은 나와 다를지 모르겠다. 그렇다. 순서는 그저 순서일 뿐이다.

돈, 사랑, 인연 등 〈워밍업-3〉의 주제와 세부 질문 따라 쓱쓱 응답하다보면 무심결에 내면이 드러난다. 당신의 깊숙한 무의식이 홀연히 등장하기도 한다. 얼씨구, 이게 뭐지? 이게 내 마음? 라이터 불 켜다가 눈썹 태운 것처럼 화들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걸으면서 연인 손 잡는다는 게 웬 아저씨 손 잡은 것처럼 "에그머니나"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하지만 당신의 어떠한 응답이든 흐르는 강물 따라 사라지는 거품 같은 한 생각일 뿐. 그러니 손 풀고 가벼이 써 가보자.

생애 내면검색 – 돈(물질)

1. 나는 돈이 얼마 정도 있을 때 풍족하다고 느끼지?
2. 나에게 돈이 넘치게 풍족하다면, 구체적인 예상 사용처는?
3. 얼마가 됐든, 나에게 가장 돈이 많았던 시절의 주요 정서나 생각은?
4. 돈이 가장 궁핍했던 시절의 주요 정서나 생각은?
5. 내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 )% 정도이다.
6. 내 인생에서 돈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 )이다.
7. 지금 내가 돈하고 대화 한다면?
8.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생애 내면검색 – 사랑(성)

9. 나에게 이성간의 사랑은 대체로 어떤 순간부터 시작됐지?
10. 이성간에 우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지?
11. 사랑 없는 섹스나, 섹스 없는 사랑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휘갈겨본다면?
12. 나의 성욕을 촉발시키는 감각, 감정, 생각, 기억, 분위기, 이미지 등은?
13. 스킨십 할 때, 내가 강하게 애착하는 감각, 감정, 기억, 생각 등은 뭐지?
14. 지금의 내 삶에서 사랑이나 섹스의 중요도는 ( )% 정도다.

본격적 내면 검색의 시작
각자 삶의 가치를 주제로
잔잔한 질문 던지며 사유
내면의 언어를 풀어내보자

15. 내가 사랑이라는 추상적 현상에게 길든 짧든 한마디 한다면?
16. 이성간의 사랑에 대해 나의 생각을 마음껏 풀어본다면?

생애 내면검색 – 인연(동료, 친구, 도반)

17.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말, 몸짓, 표정, 음색, 체취, 옷차림은?
18.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의 말, 몸짓, 표정, 음색, 체취, 옷차림은?
19. 상대와 친근해졌을 때 주로 내가 잘 하는 말이나 태도는?
20. 늘 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불편해졌을 때 내가 취했던 태도나 속마음은?
21. 나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주로 취했던 태도나 속마음은?
22.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한다면?

당신은 위 3가지 주제를 만나 글춤을 췄다. 그렇다. 그냥 막춤 추듯 적으면 된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은 안 나고 짜증만 난다' 라고 써도 좋다. 이런 가벼운 응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뭔가 근사한 글발을 생산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관념을 벗어던지는 힘, 말이다. 나의 내면을 알몸 그대로 백지 위에 드러낼 수 있는 뻔뻔함 혹은 대범함을 획득한다. 누가 볼 것도 아닌 글이다. 당장에 찢거나 태워질, 참으로 수명 짧은 내면 소식이다. 그러므로 다소 무책임해도 좋다. 그냥 깊은 숨 내쉬듯 "후우"하면서 적어보라.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페니베이커(James W. Pennebaker)는 1986년, 제자 50여 명을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나눠서 하루 15분씩 나흘간 글쓰기 실험을 한다.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이 실험은 두 집단이 추후에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갈 확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실험군에게 글쓰기를 통해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드러내기를 주문했다. 통제군에게는 일기나 메모 같은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글을 쓰도록 했다. 실험 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자 페니베이커는 두 집단의 병원 출입을 추적 조사했다. 소위, 추후 실험이다. 결과는 실험군이 통제군에 비해서 신경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갈 확률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기나 편지글 등 일상적인 글쓰기에 비해 자기만의 비밀이나 상처를 드러낸 사람의 치료효과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내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 소모임은 최근 들어 은근히 굳어져가는 규칙이 하나 있다. 그날 모임에서 말수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밥값 일체를 '쏘는' 것! 아내에게서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딱, 감이 왔다. 적지 않은 밥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동창의 마음이 짐작됐기 때문이다. 세상 천지에 누가 그의 생각과 감정들을 이렇게 맛있게 소화시켜줄 것인가. 그날의 밥을 '쏘는' 동창은 죽마고우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슴에 맺힌 온갖 감정이나 생각들을 마음껏 풀어냈을 터였다. 그 시초는 중국에서 돈깨나 만져본 사업가 친구가 "오늘은 나 혼자 떠들어댔으니 내가 쏜다!" 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시부모와의 마찰, 자녀 문제 등, 상대적으로 과격하고 열렬히 떠들어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밥을 사게 된 것이다. 이때 친구들의 역할은? 그저 수학시간처럼 멍 때리고 있으면 밥값을 한 게 아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처럼 광적인 응원과 추임새로 친구 가슴에 맺힌 온갖 감정과 생각의 쓰레기들을 소각시켜주어야 한다.

집단 치료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일까. 영화 〈아바타〉에서 죽음에 이른 그레이스 박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나비족들이 손에 손잡고 대지의 신에게 흐느끼며 기도하는 노래를 기억하는가. 그런 장면이 영화에만 있는 건 아닌 듯하다. 식당에 가서 유심히 살펴보라. 중년을 넘어선 남녀가 시공을 초월하여 초등학생 같은 표정으로 집단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치료적 발설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고 있다. 드러내면 치료된다.

우리는 세 번째 워밍업에서 '돈과 사랑과 인연' 의 소소한 측면을 툭툭, 가벼운 잽에 가격당하는 챔피언처럼 점검해보았다. 어떤가. 맞아볼만하지 않은가. 이런 〈워밍업〉을 통해 나만의 사연이 저 깊은 곳에서 봄날의 배암처럼 또아리를 풀고 반응해온다면, 글쓰기명상 워밍업은 나름 내용 있는 몸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실로 말하면,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별로 노출돼 본 적이 없다. 누가 물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질문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삶의 중요도에서는 1, 2, 3 등일 수 있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가벼운 잽을 계속 더 맞아보자. 혼곤한 잠에 빠진 나의 영혼이 푸른 정맥을 꿈틀거리며 각성의 머리통을 곤두세울 때까지 내면의 언어를 풀어보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지금 '건강' '일(직업)' '가족' 따위의 점검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생애 내면검색 – 건강

23. 내 생애 가장 건강했던 시기와 그 당시 태도, 언어, 인간관계 등은?
24. 심신의 불건강을 겪었던 상황과 그로인해 얻은 것, 잃은 것은?
25. 좋건 나쁘건 현재 건강상태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26. 향후 건강을 잃었을 때 취하고 싶은 태도나 원하는 조건은?
27.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구체적으로)?
28. 내가 건강할 때 주로 취하는 태도나 말, 행동, 습관적 모습은?
29. 심신이 불건강할 때 주로 취하는 태도나 말, 행동, 습관적 모습은?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허가 제 2017-10호 법인등록 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입종구비서류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송천동) 천룡사 | 전화 054)823-6777 | HP 010-4053-2722



대행 스님

여러분 각자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또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우리 자가발전소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는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는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등이 합쳐서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모두 각자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무명체를 가지고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무명체라고 했을까? 금(金)이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명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되지 못하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은 중생이로되 금이 빛나듯이 빛이 난다면 으레 남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용량에 따라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차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똑같이는 못합니다마는 항상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의 자가발전소는 꺼진다거나 켜진다거나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걸리고 가시는데 이런 점이 있죠. 무명천이 있다면 환상천이 있고, 환상천이 있다면 삼중천이 있고, 삼중천이 있다면 바로 인천이 있고, 인천이 있다면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다면 도솔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이름은 각각 일곱 가지의 이름이지마는 천(天), 천 했습니다.

즉 그것을 알고 보면 동그라미를 일곱 개를 그려 놓고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한 놈이나 환상천이라고 한 놈이나 다 한 놈이지마는 그래도 물맛은 물맛대로 나는 것이고, 산 맛은 산 맛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 맛은 들 맛대로 나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천이로되 둥근 천이며 한마음이며 근본입니다, 전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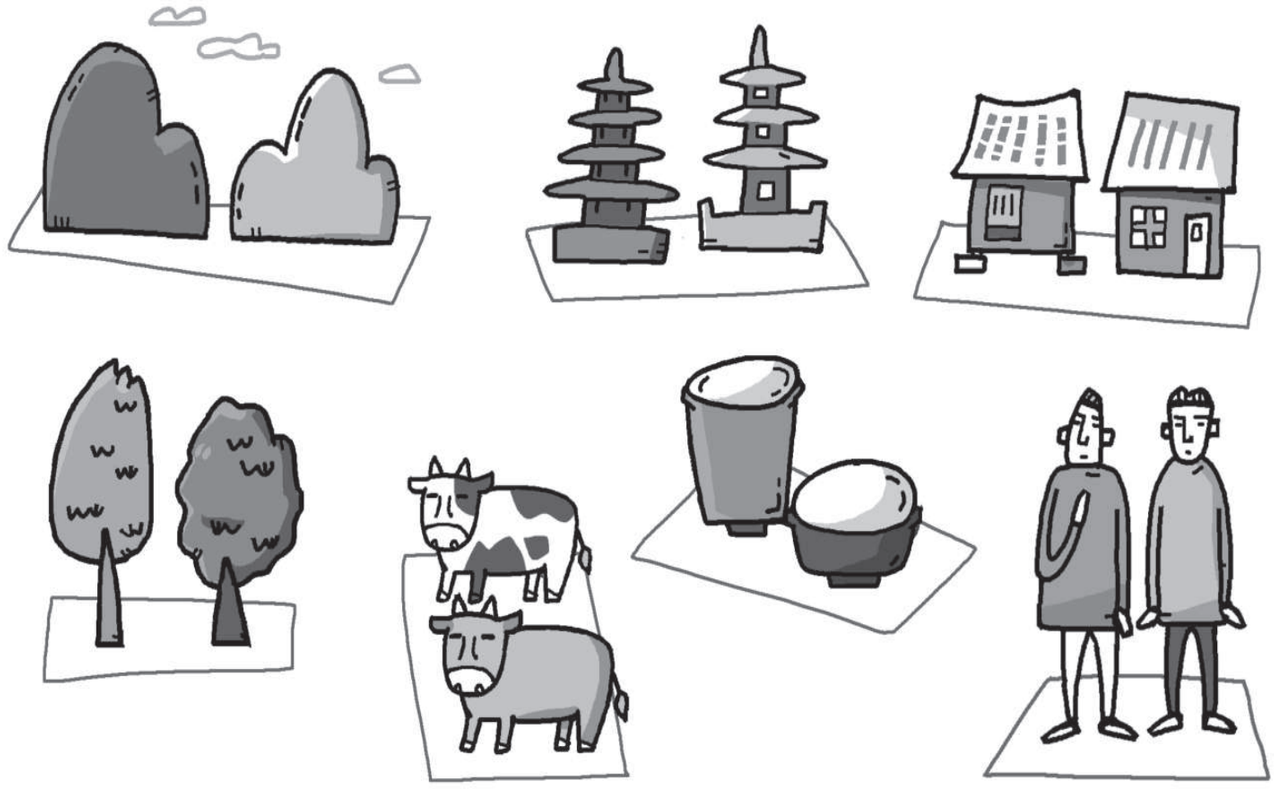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나 "사람은 고정 관념으로써 있지 않고 고정 행이 없으니 맛도 천 가지 만 가지 맛이 나네." 하는 소립니다. 만 가지 맛이 나! 전력도 용도에 따라서 만 가지로 쓰이듯이 자기 그릇대로의 씀씀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될 테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에 따라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천에서 색(色)을 보고 너무 취해. 사랑, 애정, 욕심, 착. 이건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끄달리는 거야, 끄달려. 그러니 그걸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씀씀이를 쓰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 용량대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탑돌이 하는 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옛날 얘기 삼아,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현실이고 과거도 현실이니까. 삼중천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몸으로 비교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예전에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어떠한 떡을 자시렵니까?" 한 그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야, 어디 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뭐가 어떻게 터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게끔 나와 더불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참 공부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감사해서요.

옛날에 아주 불여우같이 만날 남을 해롭게만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선신으로서 아주 충만한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더랍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악으로다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은 선으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에 또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 그거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져나갔거든요. 악으로다 쓰는 사람 말이에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는 그런 속담 있죠. '한 도둑 열 놈이 지키지 못한다' 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재주가 좋아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났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중국에서는, 중국 땅이라도 나라가 뭐, 연나라니 초나라니 제나라니 한나라니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부잣집에, 정말 여우로서 행동을 아주 나쁘게만 하는 그 친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도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랬는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귀한 때였지, 이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하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딴 나라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사냥을 나왔는데 이쪽 왕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신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서로 싸움이 났는데 이쪽 착한 왕이 죽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 착한 여자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아하! 저 사람은 아주 착하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 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왕의 칼을 쓱 뽑아서는 그냥 친 겁니다. 그대로 다 무찌르고 다 쫓아 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도 말이 아니고 얼

☞ A18면으로 계속



BTN 불국토상조 "신상품" 출시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로 불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안전합니다
- 불교TV가100%투자한 자회사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 (만기시 1년후 100% 환급)

편리합니다
- 전화한통으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 장례전문지도사 24시간 대기
- 전국 어디에서든 서비스 가능 (도서지역 제외)

경제적입니다
- 매월 합리적인 가격(월3만원)
- 물가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가입시 할인혜택
- 10인이상 단체가입시 할인혜택

신행입니다
- 입관 성복례 스님 직접 시다림
-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 제공
- 영가의 극락왕생 인도하는 장엄번 제단 설치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둘이 아니고 형제고 부모고 자식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니만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로 맞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키고 해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쁜 여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던 상대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두 친구,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던 그 친구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립이 졌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은 또 악하게 그렇게 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은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악한 나라의 왕비는 자꾸 임금을 악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쪽 왕비는 선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악한 그쪽에서 백지 한 장을 활에다 매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끌러 보니깐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신하에게 다 보여도 이 글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느 때 쳐들어온다는 건지, 안 쳐들어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몰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비한테 걱정스러운 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제게 좀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습니다. 왕비는 아주 겸손하고 뭐든지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알지만 그러한 내색도 없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 내비치지도 않게끔 자꾸 다짐을 하고요. 사람이 값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하더러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부인에게 보였죠. 그 임금은 부인의 말을 100%로 믿고 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이 부인이 참 보살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관세음보살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더니 "아무개야, 물 한 그릇 떠 오너라." 그러거든요. 물 한 그릇을 넓은 데다 떠 오니까 이 물에다가 이 종이를 넣고 "아주 정성스러운 대왕의 피 한 방울이 여기 들어가야만 이 글씨는 보입니다."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피를 정말 넣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성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의 임금이라면 생명을 걸고 임금 노릇을 해야 돼요. 몸을 사리면 임금 노릇을 못하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손수 오른손 손날 부근을 잘랐습니다. 조금 해 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퍼지면서 그 백지, 물속에 넣은 백지 속에서 글씨가 나오되 "이 글자를 못 읽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삼키겠노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 부인이 '무(無)' 자 하나 썼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백지예요. '무(無)'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글씨를 써서 보내도 문제인데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글씨를 탁탁 알아내고 이걸 답을 했으니, 거긴 의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여우 아니라 불여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악한 도술이, 그러니깐 여긴 도력이고 그쪽엔 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화에 많이 나오겠지마는 예전엔 도술은 육신무예, 술(術)! 또 마음을 깨달아서 도력으로써 하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하여금 머리를 굴려서 도력이라고 합니다. 정신무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력으로써 그렇게 100% 무궁무진한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술로써 임금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인 게 지금으로 치면 안락사, 즉 도술로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은 삼중천이나 저런 데 가서 이름이 다 통하는데, 환상천이다 하는 거는, 아직 죽을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런데 들어가서 이름이 박히지 않고 그냥 거기 몰켜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더러 이 앞뒤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해 놓고 자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몸을 움죽거리지 않고 죽은 거 같이 보일 테니까 모두가 장사를 지내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장사 지내지 말아 다오." 그러고선 혼백을, 남편의 혼백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백을 찾으러 들어가서…. 간단히 얘기하죠, 아까 얘기 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런 데는 무명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천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삼중천을 거쳐서 보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래서 물었더니 거기에서 일러 주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 보면은 알 수 있다고요. 즉, 아까 얘기한 환상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천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한 끝에 혼백을 찾았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사방천에서도 도와주고 참 도리천에서 도솔천에서 한마음이 돼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혼백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환상천도 무(無)고 이 무명천도 무다.' 이거야. '모두가 무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이 혼백을 가져오는 것이고, 조끄마한 좁쌀 알갱이 하나만 한 그 원동력이 이 세상을 싸고도 남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생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나온 것도 알았고, 후일에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모든 걸 거기에서 비춰 봐서 다 알게 되고 그때에 눈도 뜨고,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말하듯이 천안통으로 모든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혼백을 가져와서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래 가지고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참, 어떻게 행을 했을까?

그분은 몸으로써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즉 말하자면 왜, 애들 만화영화 있죠? 만화영화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로, 무전통신기와 광선, 레이저 광선이 있는 거를 보세요. 그게 그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신하들은 다 놔주고 나쁜 사람들은 다 쳤답니다,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도 역시 뒷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나서서도 봐주었다는 얘깁니다. 나중엔 온 데 간 데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절로 들어가서 고승이 됐다 합니다.

그때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고 했지마는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중에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나 해군이나 군부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린 삽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마는 다른 어떤 혹성에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리를 알아야 앉아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죽겠다고 하니깐 여기서 딴 데 있는 사람을 안락사를 시켜서 그 집안이 편안해졌다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죠. 수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할 때에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명만 쳤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즉 혼백을 또다시 내보내서 수련을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여도 살리는 거, 살려도 살리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인연이 없다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 건질 수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 반쪽을 사이좋게 소련과 더불어 나누어 가진 겁니다. "나는 반을 가질 테니 너도 반 가져라." 무슨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탕 반 조각 쪼개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대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국내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는 참 처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또 깨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령만 알면 된다. 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크면 큰 대로 쓸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쓸 거면 육지에서 쓰고, 공중에서 쓸 거면 공중에서 쓰고, 물에서 쓸 거면 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가시밭도 자갈밭도 아주 험한 진 구덩이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어리는 것은, 여러분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옛날에 수억겁 전에 사람 하나 만나기가, 사람 하나 되기가 힘들었거든. 그때에 사람이 몇백 리에서 하나 났으면 또 몇백 리 건너에서 하나 나고,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그렇게 수두룩하게 난 게 아니라 백 년에 하나 나기 어려울 만치 그렇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 년에 하나 나기 어려웠을 때에 사람을, 여자나 남자나 한 번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에, 지금 현재에도 인간뿐만 아니라 저런 벌레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형성된 이 인간의 밟힘이 얼마큼 아팠었나.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왔던 거라면 그냥 갈 수는 없죠. 수억겁 전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화돼서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잠재의식 테이프에 살아온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모두 둘이 아니고 모두가 형제고 부모고 자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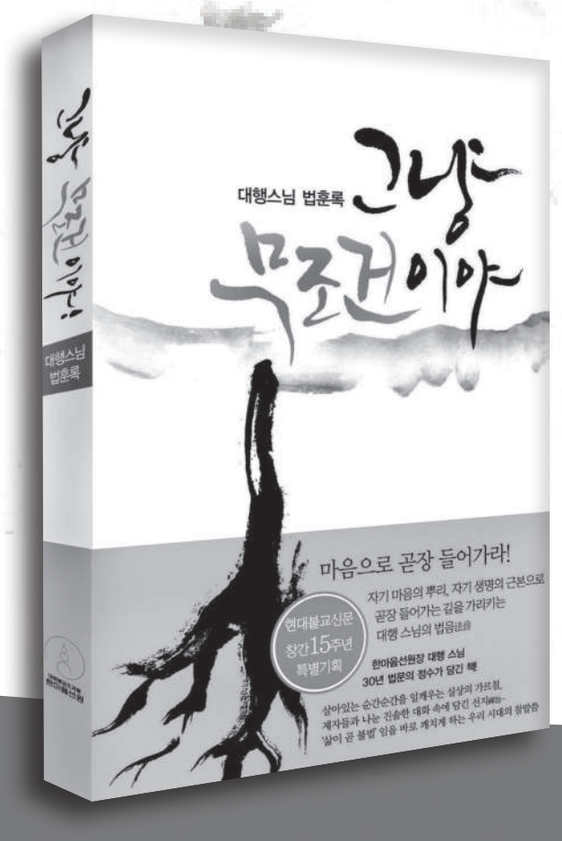
우리가 인간으로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건 뭐, 중간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쫓기고 쫓고, 또 우리도 역시 쫓기고 쫓고 밀려나고 이렇게 살아나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자리에 지금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이 자리에 태어나서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참 정당하게 또 편리하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껄껄 웃으리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수억겁 전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왜 멀리 두십니까? 내 주인공 하면은 그 속에 석존이나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것을, 일체 조상들이 다 계신 것을 구태여 왜 멀리 바깥으로 내놓고선 찾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기복을 떠나시면서 자성(自性), 자신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껄껄 웃으리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1987년 3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주경 스님
수덕사 대중 · 조계종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겨울 석 달 안거가 지날 무렵
보성 큰스님의 부고를 들었다

1989년 비구계산림서 처음 친견
사투리 · 시골노인 풍모와는 달리
수행 · 경륜 두루 갖춘 율사셨다
어디 갈지 모를 젊은 승려들을
어린 소 다루듯 능숙히 이끌어

두루 듣고 알기에 당신은 일생을
'平常事'를 챙기며 살아오셨다
마지막 가르침 가슴에 울려온다
"정진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 뿐"

겨울 석 달의 안거가 다 지나가고 있었다. 선방에서는 죽비를 놓고 큰 절 대중과 산내 선원, 암자의 식구들까지 온 산중의 대중이 모여서 전체 산중의 쓰레기도 줍고 청소까지 마쳤다. 잠시 여유있는 차담 자리가 마련되었다. 어른 스님들께 "덕분에 한철 잘 살았습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니 "왜, 어디 가느냐"고 물으셨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가! 아차 싶었다.

그러면서 "방을 빼느냐"고 한 말씀 던지신다. 그저 한 철 잘 산 것 같아서, 스스로 대견하고 대중 스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인사말씀을 드렸다가 호된 법거량을 당한 것이다.

"아이고, 저는 이 산중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엄살을 부렸다. 완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산중에 대중으로 만족스럽게 철을 지냈다는 기쁨과 고마움이 새삼스럽다. 이제 해제가 하루 남았을 뿐이다.

해제법회를 겸한 마지막 포살을 위해 대중이 모이고 있을 때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의 부고가 전해졌다. 담담하게 "때 맞춰 가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몇 년 전 스님께서 무척 위급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 이미 한 차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뒤로 당신의 건강이 무척 양호해져서 이전과 다름없이 대중과 지내신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언젠가 스님께서 떠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1989년 가을 비구계산림에서 스님을 처음 뵈었다. 정확한 소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수계산림 전체를 총괄하셨다. 투박한 사투리에 꼬장꼬장한 말투 그리고 시골 노인 같은 당신의 인상은 여유있고 차분할 거라는 일반적인 율사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수행과 경륜을 두루 갖춘 어른이셨다. 신심 충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을 주체 못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승려들을 노련한 농부가 어린 소를 다루듯 진솔함으로 능숙하게 이끌어 주셨다.

한 번은 당신께서 수계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당 바깥에서 어린아이가 울면서 투정부리는 소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대중의 분위기가 무척 탁하고 부담스러워졌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외면하고 말씀을 이어가시더니 마침내 한 말씀하셨다.

"아이고, 뉘집 아가 시끄럽게 울고 떠드노. 스님들 수계산림하는데…. 누가 가서 조용히 좀 시키라."

그 순간 대중은 폭소를 터뜨렸고 탁하고 부담스럽던 분위기는 확 바뀌어 버렸다. 길게 참은 당신의 인내도 존경스러웠고 때맞춰 투박하게 던진 한 말씀도 진솔하고 좋았다. 이때 이후로 수계 대중은 율사 스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다. 상상 속의 율사 스님을 버리고 실재 진면목의 율사 스님을 보게 된 것이다. 이후 스님을 무척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법장 스님께서 총무원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국장으로 방장실에 인사를 가게 되었다. 마침 보성 스님께서는 붓글씨를 쓰고 계셨는데 인사를 받으시고는 붓글씨를 계속 쓰셨다.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스님께서 글을 한 폭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름을 쓰고 승납을 물으셨다.

20년이 조금 안 되고 당신께 비구계 산림을 살았다고 말씀드리니 이름 아래 화상(和尙)이라고 쓰시겠다고 했다. 부담스러운 호칭이라고 말씀드리니 "아니야, 충분해.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으니 당당하게 받아"라며 그리 써주셨다.

한참이나 어린 후학조차도 존중해주시는 당신의 자상함에 존경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두루 듣고 알기에 당신은 일생을 평상사(平常事)를 챙기며 사신 분이다. 평상심이 아니면 어찌 평상사를 챙길 것이며, 평상사를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평상심을 말할 것인가. 평상사로 살아온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이 가슴에 울려온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

社 說

백년대계본부 재편에 거는 기대

지난 2017년 조계종 미래 전략기구로 출범한 백년대계본부가 2년 만에 전면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는 3월 말경 출범을 목표로 재편 중인 백년대계본부는 기존의 대중공사추진위원회 · 종책개발위원회를 해산하고, 종령개정을 통해 신규위원회인 화합과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를 추가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백년대계본부를 종단 혁신 원동력으로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화합과혁신위원회는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이는 다수의 종도 의견을 듣고, 종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으로는 교구본사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중진 비구니 스님 등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에 방점을 둔 여러 방안들도 추진된다.

문화창달위는 불교문화 보존 ·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며, 백만원력결집위는 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성취하기 위한 신규 기관이다. 또한 미래세대위원회 2기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재편되는 백년대계본부는 종단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 종단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시기적으로도 혁신 추진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난 내우외환의 갈등은 조계종이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음을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백년대계본부에 거는 기대다.

'절망' 속 '희망'을, 청년 포교 시작하자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고달픈 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이 곳에 지난 2018년 2월 작은 쉼터가 생겼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이 개소한 마음충전소였다. 10여평 남짓한 곳에 작은 다실과 텐트가 전부였지만 고시원과 학원, 독서실을 쳇바퀴처럼 돌던 학생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됐다.

우울증을 앓던 한 학생은 스님을 만나 상담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세웠고,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던 한 학생은 어머니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이 챙겨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새로운 힘을 찾았다. 마음충전소는 고시생들에게 힘든 시기 잠깐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곳이 됐다.

이런 마음충전소가 지나온 1년의 과정은 불교계에 큰 메시지를 준다. 그동안 불교계는 수동적인 전법포교에만 머물러 있었다. 청년포교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새내기 학생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포교, 혹은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정신문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수준이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전법 포교 차원에서 소외계층 포교를 주목하는 이는 적었다. 종교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누구일까를 고민해보면 청년들 중에서도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들이나 고시생, 혹은 소년가장 학생들에게 보다 다가갔어야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란 이름은 '절망'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회자되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로는 힘들다. 정말로 힘든 청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때 이들은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몸소 체험하고, 언젠가 불심이 증장되어 불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음산책

마음에 봄 오는 소리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남쪽에 매화가 피고, 곧 봄이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는 요즘이다. 정신치료의 대가인 故이동식 박사는 "심리치료는 보살행과 같고, 내담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봄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다. 봄 눈 녹는 듯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떠오른다.

40대 싱글여성 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얼굴은 어둡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최근에 다시 만난 그녀는 깜짝 놀랄 만큼 밝아보였다. 말투와 태도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하고 평화로웠다.

저절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하고 물었다. 김 씨는 우울증에 명상이 도움 된다고 하여 2년 전 한 명상모임에서 '감사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매일 카톡방에 감사하는 것을 세 가지 적고 명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 씨의 상황은 도대체 감사는 커녕 절망스럽고 원망할 일만 가득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를 입력하면 감사할 일이 출력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심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시험해보고 싶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매일 억지로 감사할 점을 찾았다. 도반들이 쓰는 감사 내용을 보며 배우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놀라게 되었다고 한다.

항상 돈에 쪼들리던 김 씨는 공기도 무료, 햇빛도 무료, 산도 하늘도, 인간에게 그냥 주어진 것만 해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몸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쓰고 있다. 은행통장은 마이너스지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서서히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김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명상을 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지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포기했던 일에 도전해서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된 것은 김 씨에겐 기적과 같았다.

악조건에서 밝아진 그녀를 보며, 과거의 부정적이던 그 마음의 얼음을 녹이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가슴에 울림이 전해온다. 감사하는 정진으로 스스로 감사한 인생을 만들게 된 것이다.

매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과 분투하는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은 감사할 일들을 놓치고 살아간다. 항상 절에 가면서, 불교의 정법을 만난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종종 잊고 산다. 탐진치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 건강하게 불교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정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대행 스님은 "만물만생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마음 하나 잘 쓰는 데에 온 누리를 향기로 꽃 피울 수 있다"고 했다. 올 봄에도 많은 분들이 내면의 힘을 자각하고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회복해서, 방방곡곡에 마음 꽃들이 환하게 피어나기를 발원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힘겨운 대중의 인권 살피는 보살승
〈菩薩乘〉



부산 데파트에 위치한 부산인권센터 사무실 앞에 서 있는 정각 스님. 부산 데파트는 부산 원도심의 상징물이자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의 주요 활동처였다.

그대는 자비보살

정각 스님
(86 ·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글 · 사진=하성미 기자

인권, 사전 속에서는 선명한 명제이지만 삶에서는 늘 쉽지 않은 명제다. 동서고금에서 '완벽한 인권'의 시대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두가 행복하기란 힘든 것이다.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유린된다면 그것은 완벽한 인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가치이다. 어느 날, '인권'이라는 가치에 눈을 뜨고 서로 챙겨주지 못했던 과오를 스스로 짊어진 삶이 있다.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챙길 수 없는 이들을 돕고 있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 스님이다.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의 이력은 모두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한다. 인권을 '국민행복'이라고 말하는 정각 스님을 2월 19일 부산인권센터에서 만났다.

마지막 사형집행 참여

1997년 12월 30일. 부산교도소. 살인(공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한춘도의 형이 집행됐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이다. 그 이후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마지막 사형집행의 현장에 정각 스님이 있었다. 검사, 교도관과 함께 정각 스님도 형집행자로 참여했다. 사형이 집행되고 정각 스님은 시다림으로 사형수의 마지막을 살폈다.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사형수는 정각 스님께 삼배를 올리기 위해 밧줄을 풀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했다. 스님은 삼배를 올린 사형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형수의 얼굴은 두려움 없이 맑고 평온했다. 사형수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스님을 만났고, 불교에 귀의해 참회할 수 있었다. 불법의 가피로 생사일여의 가르침에 닿을 수 있었던 그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다. 마지막 가는 길에서 그는 평온한 얼굴로 스님과 마주했다.

이후 스님은 물 한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 슬픔을 참기에도 벅차 그 순간이 떠오를 때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당시를 회상하는 스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각 스님은 그때부터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형수를 만나오랜 동안 교화활동을 하고 사형집행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던 스님은 그 자리를 숙업으로, 그리고 숙연으로 받아들였다.

"사형수와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있는 이 자리가 내 인연자리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그 인연의 회향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집행의 당사자였던 사형수 한춘도는 모범수였고 마지막에 자신의 안구와 시신을 기증했다. 스님의 눈에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한춘도를 비롯한 모든 수감자들은 일불제자였으며 불성을 가진 고귀한 생명이었다. 그들을 위해 스님은 관세음보살상을 세워 부산 구치소를 도량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끝내 제자를 자신의 손으로 보낸 듯해 자괴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스님은 마침내 사형제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정각 스님은 1968년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교도소에서 법문을 했고 재소자의 생일을 챙기고 살뜰하게 그들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이 교도관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보면 눈을 질끈 감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형집행 후 스님은 무료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예방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스님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다. 당시 함께 해준 인권 변호사들이 있어 가능했다. 당시 함께 한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우래 변호사 등 젊은 인권 변호사들이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형편상의 이유로 상담 한 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스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고 부산자비원에서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어려운 이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상담을 이어가고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교도소에서 지켜봤던 인권 유린이 교도소 안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도소 밖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대학생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 소식이었고, 사고를 당해 다쳐도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인권'에 눈 뜨다

춘성 스님 닮고 싶어 출가
1968년부터 수감자 교정교화
부산구치소 관음보살상 조성
활동 중 '인권 유린' 목도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참여
사형수 보내며 '인권' 원력 세워
'사형제 폐지' 운동 앞장서
무료법률상담소 열어 상담봉사
소외층 위해 부산불교인권센터
'동의대 사건'후 부산인권센터 열어

스님이 그들을 위해 세운 것이 부산불교인권센터였다. 그리고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이 발생했다. 동의대 사건은 노동절을 맞아 부산 동의대 학생들이 노동자대회 원천봉쇄에 항의하고 대회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밖 인근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실탄 24발을 발사하며 주동자를 검거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총기 난사를 규탄했고 화염병을 투척했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8명을 추가로 검거하자 학생들은 사복경찰 5명을 붙잡아 도서관에 감금했다. 학생들은 경찰과 연행된 학생들을 교환 석방 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 도서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경찰관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90명이 연행되고 77명이 구속됐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고 스님은 힘을 모아야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부산인권센터다. 당시 함께 한 사람들이 김영수 목사, 김동수, 송기인, 배다지, 이정이, 문재인, 원형은 등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스님의 행보는 종교를 초월한 인간애로 확장되어갔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의 입방과 공양
B5 문화
월제 혜담 스님 대 고려불화전
B6 학술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논문(下)

“국민 모두 행복하면 그것이 불국토”



2017년 11월 23일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창립대회에 참석한 정각 스님(앞줄 다섯번째).



정각 스님은 열린 종교 화합하는 종교를 위해 노력했다. 2003년 부산종교인의 밤에 참석한 정각 스님(앞줄 세번째).

정각 스님은?

193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망월사 춘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강원도 춘성 수양사 주지, 법무부 춘천 교도소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이후 부산 미룡사를 불사하고 부산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법 제자로 일붕 서경보 스님 전국 문도회 수석부회장,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창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정의사회구현 부산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원 원장, 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 대표 등을 맡아 시민운동을 이어갔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법화종 종정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 농수산부 장관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등 100여 회 수상했다.



‘정각 스님’ B1면에서 계속

세상 편견 극복한 선구자의 삶

지역의 대중은 스님을 ‘선구자’라고 이야기한다. 선구자는 앞서가는 만큼 온 몸으로 편견과 부딪혀야 하고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스님은 부산인권센터 활동을 이어가며 정의사회구현 부산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원 원장, 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앞서간다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거센 항의와 반발이 스님을 괴롭혔다. 당시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는 경제 이념 속에서 무시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다.

“지금은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제가 활동하던 당시는 오직 경제 발전만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대구에 있는 염색공장을 방문했어요. 염색공장 사장이 제 지인이기도 했지만 넘어 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염폐수를 몰래 강으로 버리는 것을 적발하고 강하게 반발했지요. 또 새롭게 대구에서 추진했던 위천공단 설립을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 환경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스님은 오랜 관습과 이념과 싸워야 할 때는 협박도 받았다. 스님은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화장(火葬)을 널리 알리려했다.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다. 스님은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를 생각했고 장례문화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화장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발이 생각보다 심했다. 오랜 동안 유지해온 유교문화에서 화장은 ‘불효’였다. 스님에게 매일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미래세대를 걱정하며

일찍이 환경문제도 심각성 인식

‘화장’ 알려 장례문화 변화운동

27일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발족

영 · 유아 생명 살리기운동 시작

산모 · 영유아 위한 ‘라이프가든’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정도로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화장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부산 최대 공원묘지인 영락공원에 최신식 화장 기구를 들이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스님의 많은 활동에는 대부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교도소 교정 교화활동, 종교인 화합을 위한 열린 모임, 김해 노동선방, 군포교를 위한 찾아가는 법당 등 당시에는 모두가 혁신적인 행보였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정 교화 활동을 한지도 5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지가로 불렸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체계화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선구자로서 가장 보람 된 순간일 것이다. 자신이 닦은 길이 여러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 시대의 흐름을 옳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일이기 때문이다.

출가 인연…“사람이 좋아서”

스님의 출가 동기는 ‘사람이 좋아서’다. ‘부처님이 좋아서’가 아니다. 스님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 크고 작은 일을 겪기는 했지만 스님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올 준비를 했다. 스님의 인생이 출세간으로 향하게 된 것은 ‘사람’을 만나면서부터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스님을 출세간으로 이끌었다. 그 사람은 바로 망월사 춘성 스님(春成 · 1891~1977)이다. 정각 스님은 망월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의 소개로 춘성 스님을 뵈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일한 제자인 춘성 스님은 욕쟁이 스님으로 불릴 정도로 파격적인 언행으로 유명했지만 정각 스님의 기억은 달랐다.

“추운 겨울 길을 가다 맨발인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 주던 분이셨습니다. 선사의 기품과 자유로움에 저는 매료됐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어요.”

‘춘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청춘에게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의미가 없었다. 돈, 명예, 권력, 모두 앞으로의 삶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었다. 1960년, 26살에 정각 스님은 닮고 싶은 스승을 따라 출가했다. 자유인의 삶을 보여준 춘성 스님의 삶에서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부유함과 안정이 거짓말처럼 가치 없게 느껴진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를 외치고 인권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건 당연한 인과일지도 모른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겐 한없이 자비롭고 강한 권력자들에겐 사자처럼 엄정한 춘성 스님의 행보를 닮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복 드림 사업’ 전개

정각 스님은 또 다시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인권의 또 다른 말 ‘국민행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은 2017년 11월 23일 부산 영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국민 소득 3000달러가 되지 않는 극빈국인 부탄은 행복도와 만족도가 97%로 세계 최고 행복한 나라고 꼽힌다”며 “행복을 위한 참된 조건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성과와 경제개발 위주로 숨가쁘게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고르고 미래세대에게 참된 행복의 조건을 제시할 때라고 말한다. 스님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힘겨운 과제에 도전한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행복 드림 사업이다. ‘베이비 박스’라고도 불리는데, 아기를 유기하는 ‘장소’로 잘못 인식 돼 논란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스님은 명칭을 ‘라이프 가든’으로 바꿨다.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먼저 고찰하고 예방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다. ‘베이비 박스’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정원(라이프 가든)이다. 이 정원은 아기만 보호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임산부의 인권과 행복권을 보살피는 운동이다. 임산부인 엄마를 먼저 보호하고 아기의 생명을 구하며 그들의 삶이 깨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라이프 가든’은 부산 홍법사에서 시설을 운영한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지난 2월 17일 홍법사에서 공식적인 영유아 행복 드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2월 20일에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행복드림센터(라이프 가든)는 3월 중으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정각 스님은 “부처님은 행복을 깨달았다”고 정의했다. 행복이 부처님이 남겨 주신 지상과제란 의미이다. 불교를 전한다는 건 바로 참된 행복을 전하는 일이란 뜻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웃는 나라, 그것이 바로 스님이 생각하고 발원하는 ‘불국토’이다.



일본 민중 보듬은 약사여래의 가피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⑮ 28번 다이니치지 가는 길



28번 다이니치지의 오쿠노인 '츠메보리 야쿠시'의 모습. 오쿠노인은 일본 사찰에만 있는 전각으로 사찰 창건과 연관 있는 불보살 · 조사를 모신 곳이다.



다이니치지의 오쿠노인에는 쿠보 대사가 손톱으로 눌러 그린 약사여래가 모셔져 있다. 이름을 써 돌을 던지면 약사여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대일여래 본존인 28번 大日寺
이곳 오쿠노인엔 약사여래 모셔
쿠보대사가 손톱으로 그려 조성
영험 받고자 日민중 참배 이어져

어디선가 시끄럽게 들리는 매미 소리와 후끈한 기운에 눈을 뜬다. 오전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다. 젠론야도에서 제공해준 이불을 덮고 잤더니 세상 모르고 잠든 것이다.

오늘은 느긋하게 20km 남짓 떨어진 다른 젠론야도까지가 목표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 느긋히 갈 마음을 먹는다. 미적거리며 짐을 싸고 있으니 젠론야도를 관리하는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피곤하면 좀 더 있다가 가라하시는 것을 정중히 사양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으려했더니 극구 거절하시기에 젠론야도의 외관만 찍었다.

젠론야도를 출발하려는 찰나에 할아버지가 불러 세웠다.

"여기 지팡이 하나씩 더 챙겨가."

"네? 이미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2개 있으면 발이 덜 피곤해서 빨리 갈 수 있어.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순례하는 사찰에 두고 가고."

지팡이를 하나씩 더 잡고 출발한다. 양손에 지팡이를 잡으니 확실히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래서 등산할 때 스틱을 두 개씩 쓰나보다. 푹 자서 피로도 많이 풀렸겠다. 지팡이도 2개겠다. 말 그대로 날듯이 걸어간다.

젠론야도에서 이어지는 순례길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는 길이다. 중간 중간 있는 터널들이 꼭 동굴같이 축축하면서 시원해 기분이 좋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터널 안에 울려 더욱 신이 난다.

도중에 자전거 도로가 끝나고, 차도와 만나는 길이 나왔다. 헌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 전차가 다니는 고가로 아래의 길을 순례길 삼아 걷는다. 순례 이정표도 마침 고가로 아래를 안내하고 있었다. 잠시 후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자 인도가 나오고 '헨로 휴게소 500m 앞'이라는 표지판도 나온다. 마침 햇볕이 따가우니 잠시 쉬어갈 생각을 하고 걷는다.

500m쯤 걸어도 휴게소가 안 보여 두리번거렸더니 길에서 살짝 떨어진 공터에 자리 잡고 있다. 지도에 보니 '가가미 휴게소'라고 되어있는 곳이다.

휴게소에 들어섰더니 오래돼서 때가 잔뜩 낀 아이스박스가 하나 놓여있다. 뭐 있으려니 하고 별 기대도 없이 열었더니 얼음이 동동 떠있는 얼음물 속에 캔커피와 녹차가 들어있다. 예상외로 아직 현역인 아이스박스였다.

캔커피를 꺼내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니 휴게소 뒤에 분리수거 통이 있다. 캔을 집어넣는데 빈 콜라캔이 잔뜩 있다. 원래는 아이스박스에 콜라가 있었나 보다. '콜라가 더 좋은데'라며 잠시 아쉬웠지만, 그래도 시원한 음료를 이렇게 보시 받는 게 내 인연 아니겠는가.

가정집들 사이로 난 길들을 따라 걷다가 55호 국도와 만난다. 햇살이 점점 강해져 헉헉 거리면서 가는데 길 옆으로 '에이★맥스'라는 슈퍼와 마주친다. 분명 젠론야도의 할아버지가 싼 도시락을 파는 슈퍼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 들어가 본다. 도시락 칸으로 갔더니, 꽤나 그럴 듯한 도시락이 단돈 200엔, 납경료도 안 되는 가격이다. 점심으로 먹기로 하고 단박에 사버렸다.

도시락 봉투를 손에 들고 슈퍼를 나오니 아주 본격적인 땡볕이 내리쬔다. 게다가 국도 옆을 걷는 길이라 그늘도 변변찮다. 그늘만 보면 조금씩 쉬어가며 앞으로 나아갔다.

28번 다이니치지를 대략 4km쯤 남겨두고 편의점 써클 케이에 들어간다. 무엇인가 사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에어컨을 쐬려고 들어갔다가 1리터에 105엔이라는 싼 가격의 음료수가 눈에 띈다. 1리터가 105엔이라니 가난한 순례자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피인가 보다.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니 더위와 햇볕에 찌푸렸던 눈이 번쩍 떠진다. 힘차게 28번 사찰로 향한다. 역시 더울 땐 그저 시원한 게 최고다. 이열치열이란 말은 지금의 나에겐 안 맞는 말이다.

야트막한 산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오르자 곧 28번 다이니치지(大日寺)가 나온다. 다이니치지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흔한데, 이는 비로자나불의 밀교적 모습인 대일여래(大日如來)에서 유래한다. 28번 다이니치지의 본존도 역시 대일여래다.

다이니치지는 본존불보다 '오쿠노인(奧之院)'에 모셔진 약사여래불이 유명하다. '오쿠노인'이란 일본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각이다. 보통 해당 사찰이 창건되는데 인연이 깊은 불보살이나 조사스님을 모신 법당을 '오쿠노인'이라고 한다. 이곳의 오쿠노인에는 코보우 대사가 손톱으로 눌러 그렸다는 '츠메보리 야쿠시(爪彫り薬師)'라는 약사여래가 모셔져있다. 대일여래라는 부처님이 아무래도 서민들에겐 낯선 부처님이라 서민들이 친숙하게 사찰에 참배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모셨다.

어차피 오늘은 이 28번 사찰만 참배하면 시간에 쫓길 것이 없으니 느긋하게 마음을 먹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충분하니 시코쿠에서 처음으로 예불을 칠정례로 올렸다. 우리말로 예불을 올리고 있으려니 단체순례자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예불을 마치고 종각 앞의 벤치에 앉아 아까 산 도시락을 먹고는 납경을 받았다. 내친김에 유명한 오쿠노인까지 가보기로 했다. 원래 오쿠노인은 본래의 사찰에서 멀리는 수 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보통은 산꼭대기나 외진 곳이라서 가볼 엄두를 내질 못하지만 다이니치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코보 대사가 손톱으로 그렸다는 약사여래의 모습을 뵐 수 있을지 몰라 잠긴 문 안으로 들여다보지만 비단 장막으로 가려서 보이질 않는다. 약사여래 부처님답게 이곳은 여러 병에 영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목 위에 있는 눈이나, 귀, 등의 질병에 영험이 있단다.

아픈 이들은 구멍이 뚫린 돌에 이름을 써서 공양을 올리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당의 마루 밑으론 사람들이 이름을 써서 봉헌한 돌무더기가 쌓여있었다.

오쿠노인 옆으론 약수가 흐르고 있었다.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가 녹아든 '가지수(加持水)'란다. 거기에 토사 명수 40선에 들어있는 맛있는 물이라고 한다. 몸에 좋고 가피도 있다기에 일단 한 바가지 가득 마시고는, 물통의 물을 비워 약수로 채웠다.

길을 내려와 다시 논길 사이로 난 순례길을 걸어간다. 날벌레들이 득시글해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다. 한참을 걷다가 거의 다 왔나싶어 길을 물어보는데 다들 젠론야도의 위치를 모른다고 한다. 혹시나 싶어 젠론야도 근처의 대사당을 물어보니 역시 모른다고 한다. 지도를 펴서 보여주니 아직 젠론야도와 대사당이 있는 지역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다시 부지런히 걷다가 일단 젠론야도 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젠론야도를 관리하는 니시오카 씨에게 젠론야도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젠론야도에 열쇠가 따로 걸려있지 않으니 마음껏 사용하라는 답을 받았다.

한참을 걷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서 젠론야도 근처에 있는 마츠오 대사당(松尾大師堂)에 도착했다. 휴게소와 대사당을 겸해 놓았기에 배낭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기도를 했다. 대사당 안쪽으론 화려하게 채색된 코보 대사상이 모셔져 있었다. 잠시 쉬려고 앉았더니 모기가 무리로 몰려든다. 앉아 쉬기는 힘들어 몸을 풀 겸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기를 쫓았다. 그렇게 서성이고 있으니 차 한 대가 대사당 앞에 선다. 차를 몰던 아저씨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를 걸었다.

"오헨로상! 혹시 젠론야도 가는 한국인 헨로상인가?"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 길 헤매는 것 같아서 데려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니시오카 씨세요?"

"그래요, 내가 니시오카에요, 차에 타요. 젠론야도 가는 동안에는 시원하게 갑시다."

차에 올라 5분정도 달리자 젠론야도가 나왔다. 이곳의 젠론야도는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기로 유명하다. 커다란 유리문 넘어 다닥다닥 서있는 묘비가 훤히 보인다.

"여기 한국인이 왔다 간적 있나요?"

"방명록은 보면 몇 명 왔다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방명록을 살펴보니 한국인 2명이 다녀갔다. 그 중에 한 분은 스님이셨다. 한국어로 쓰여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니시오카 씨께 즉석에서 번역해 읽어주니 매우 기뻐했다. 내용은 대부분 여기까지 무사히 순례해서 기쁘다, 이런 곳에 묵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니시오카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일본이 전쟁 때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지. 한국이나 중국에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일본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급적 피하는 주제가 역사와 정치 문제다.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었다. 조금 놀라서 가만있으려니 이어서 이야기가 나왔다.

"잘못된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를 침략했으니 질 수 밖에 없었겠지요. 지금 이렇게 외국의 순례자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례를 하고, 내가 만든 젠론야도에 묵어준다니 선조들의 악업이 조금이나마 씻길지도 모르겠어요."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니시오카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 이렇게 묵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시설과 주변 지리안내를 들었다. 특히 냉동고에 얼음이 있으니 먹거나 가지고 가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숙박료인 300엔은 불단에 놓인 상자에 넣어두면 된다고 했다.

곧바로 냉동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대야에 넣고 얼음물로 족욕을 했다. 더위에 지친 몸에 한순간 냉기가 올라오니 정신이 번쩍 든다. 오늘도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가가미 헨로 휴게소. 시코쿠 순례길 위에서 시설이 좋기로 꼽히는 휴게소다.

– 순례기에 나온 니시오카씨의 젠론야도는 현재 여러 사정으로 폐쇄되었다.
– 도보 순례 중에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보통 500ml 페트병 두 개에 물을 담아 다니는 것이 무난하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마음 거울에 비친 ‘참나’ 만난건 기적”



마음거울

대화 지음/민족사 펴냄/1만 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만약 이렇게 참만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나에게 참만남은 정말 구원의 의미이다”〈김진영〉

“참만남은 나에게 나를 만날 기회를 주었다. 나를 만나고 남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을 주었다”〈조수현〉

대화 스님의 ‘참만남 집단상담’에 참여한 이들이 쏟아내는 희망의 회복 메시지들이다. 40여 년 전 용타 스님과 함께 동사섭 행복 마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들과 현직 상담가들, 초중고 교사들을 지도해 온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대화 스님이 그동안 상담 사례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대화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깊은 내면의 그림자와 만나고 가슴 시린 아픔을 털어내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 내밀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하나의 마음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해 준다.

평안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시대, 위기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10~30대 청장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50대 또한 자살이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라는 것은 믿기 힘든 현상이지만 사실이다. 자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조절 장애 범죄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반증 하듯 심리상담 센터가 성업 중이다. 심리 상담 관련 서적도 즐비하다. 너무나 많아서 옥석을 가리기 힘들 정도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출간된 대화 스님(힐링캠프 명상의 집 촌장, 전(前) 사단법인 동사섭 및 재단법인 행복마을 상임이사)의 〈마음거울〉은 출간 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성 교육 대 마스터, 상담가들 스승
‘힐링캠프 명상의 집’ 촌장 상담 사례집
대화 스님 참만남 집단 상담 후기 모음

대화 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용타 스님이 창안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인 동사섭을 최초창기부터 함께 개척한 수행자이다. 수십 여년 동안 명상 수행과 심리 상담을 해 온 대화 스님은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으로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 상담가이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심층상담 및 슈퍼비젼, 현직 상담가들과 초중고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용타 스님(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깊고 넓은 치유와 정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며, 뭇 상담자나 상담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가히 필독서가 되리라고 믿는다. 나 자신도 거듭 읽으면서 치유와 정화의 공덕을 얻고 상담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칭찬했다.



〈마음거울〉의 저자인 대화 스님(사진 윗줄 왼쪽서 세번째)이 ‘참만남 집단상담’ 참여자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용타 스님의 추천사서도 알 수 있듯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를 엮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게 되고 치유와 정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기존의 상담심리에 관한 서적에 대해 딱딱하고 지루하거나, 혹은 너무나 사적인 내용이라, 그저 그렇다는 편견을 불식시킨다.

대화 스님이 내담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장면을 대화체로 생생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상세히 설명해 흥미진진하게 치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가볍게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상담 하고, 전문 상담가는 상담 과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총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부에서는 대화 스님이 그동안 상담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주제별로 가려 뽑은 16가지 상담 사례를 담고 있으며, 2부는 대화 스님의 집단 상담에 참여한 28명의 후기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16명의 상담 사례가 담겨 있다. 만두만 먹으면 체하는 A, 투덜대며 짜증내는 MA, 매사 무기력한 C, 피맺힌 열등감에 사로잡힌 P, 부모에게 반항하는 E, 늘 징징대는 울보 W 등 내담자들과의 이야기를 대화 스님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문체로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사례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내 가족 친지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공감이 간다.

이 책에는 대화 스님이 내담자의 고통을 마음 깊이 경청하고, 수십 년 내공으로 연마한 촉으로 내담자의 내면 깊숙이 숨겨둔 그림자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표현하여 드러나게 해 주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내담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모습도 진솔히 표현돼 있다. 사람 사람마다 가슴 속에 내밀하게 품은 처절한 아픔의 그림자를 한없는 사랑으로 경청하고 안아주면서 끌어내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내담자들은 한결같이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답답했던 속이 후련해지는 체험, 체증 같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진다고 토로한다.

스님 상담의 기법 중 가장 돋보이는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경청과 사랑이다. 40여 년 동안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해 온 대화 스님의 상담 비결이자 스님과 상담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건져낸 수많은 사례의 핵심 또한 사람 사랑인 것이다. 실제로 스님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와 정진, 사람 사랑이 당신의 업무라고 밝힌다.

대화 스님은 책 속에서 “상담자는 늘 깊은 통찰과 자비와 의연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는 상담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자세요, 그러한 안내가 상담의 생명이다. 인간에 대한, 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갖고 함께해야 할 무거우면서도 경건한 과제이다. 이런 내면 여행 명상 작업 이후의 첫 교제인지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의 그림자가 없어졌으니 젊은이답게, 사랑하는 자답게 설레고, 설렘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한 것이다. (중략) 이성(異性)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람(S가 처음엔 그렇게 말했었다.) 속에 이런 오묘하고도 묵직한 사연이 있을 줄이야! 쉬운 일은 아니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얼마나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다 알아차릴 수 있을지, 늘 큰 화두로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위와 같이 상담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중간 중간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현직에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부서는 대화 스님의 집단 상담에 참여한 후기가 중점적으로 실려 있다. 대화 스님은 “삶은 사람 사랑이요, 삶은 관계이며, 삶의 현장은 표현미학의 뜰이자 관계 인격의 장”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참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함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집단 상담을 통해 돕고 있다.

명상의 본질은 온전한 ‘쉼’이다



쉼의 기술

쟈 낄룽 린포체 지음/행복수협 옮김
담앤북스 펴냄/1만 5천원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쉼’이다.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기타의 줄을 강하게 조이기보다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함 ‘쉼’에 이르러야 한다.

보다 깊고 온전한 ‘쉼’을 위해 낄룽 린포체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7단계 명상 프로그램을 고안해 시행했다. 1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진행한 명상 프로그램의 방법과 그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쉽게 풀고, 각 단계마다 자주 발생하는 미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소개했다. 온전한 ‘쉼’을 위한 7가지 명상은 상좌부와 대승불교, 금강승 등 불교의 모든 전통에 입각한 것이며, 초보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사람들의 삶도 빠르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이지만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도 빨리 성과를 내고자 욕심을 내며 서두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불안해한다. 기타의 줄을 계속 조이기만 해서는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듯이, 우리는 집중과 쉼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현대인에게 필요한 명상은 보다 깊고 온전히 쉴 수 있게 한다. 7가지 명상의 본질은 ‘쉼’이다. 보다 깊고 온전한 ‘쉼’을 위한 7가지 명상은 우리 마음을 평안히 쉬게 하고 활짝 열어 준다. 쉼의 핵심은 단순함이다. 복잡한 방법과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7가지 명상법의 핵심을 쉽게 흡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름길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그 길이 단지 편리하기만 하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욕망과 불안에 지친 삶 변화시키는 7가지 티베트 명상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
보다 깊고 온전한 ‘쉼’을 위한 가장 뛰어난 명상법 소개

저자인 낄룽 린포체는 티베트에서도 가장 높고 고립된 곳에서 지내다 서구에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낄룽 린포체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충분히 깊게 쉬지 못하고 명상의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통적인 불교명상이 목표로 하는 해탈은 곧 ‘모든 것 속에서 가장 깊이 쉬는 것’이기에, 린포체는 전통적인 불교 명상을 현대인에게 적합하게 재해석한 7가지 명상법을 개발했다. 이 책에 소개된 7가지 명상은 모두 불교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 첫 번째서 네 번째 명상은 상좌부 전통에 기반을 두었고, 다섯 번째는 대승적 방식이며, 여섯 번째는 금강승 전통, 일곱 번째는 족첸 전통의 명상이다. 7가지 명상은 이러한 수행 전통을 현대인들에게 적합하게 변형한 것으로, 완전히 단계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책에서 낄룽 린포체는 독자들이 7가지 명상 각각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체계적으로 인도한다. 7가지 명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기보다 덜 하기로 이끈다.

김주일 기자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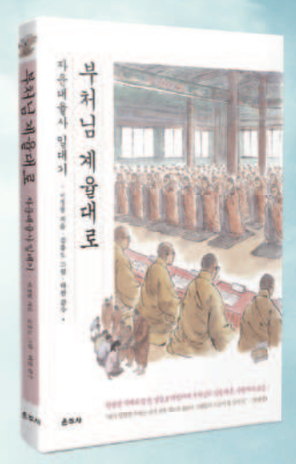
정선 염불감응록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여 현생과 내생에
큰 이익을 얻은 이들이 밝히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염불 감응 이야기!

시방연우 지음, 정전 옮김/신국판/296쪽/값 14,000원

한국불교 계율의 중흥조, 자운 대율사 일대기 출간!

부처님 계율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한평생 지계와 참선, 염불로
여법하게 수행한 자운당 성우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



- 1948년 봉암사 결사에서의 첫 수계 이후 1991년까지,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화상으로서 출재가자 10만여 명에게 수계한 대율사!
- 매일 10만 번의 ‘아미타불’ 고성염불과 아미타경 48편 독송, 미타예경 1,080배 등을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실천하여 계정일치戒淨一致 수행을 제창한 염불 수행자!

이정범 지음, 김종도 그림, 태원 감수/국판/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국불화의 그리움, 고려불화

'천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 월제혜담 스님 대 고려불화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3월 6일부터 19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려불화, 역사의 단층으로 인해 오롯이 이어지지 못했던 한 시대의 미술. 그것은 한국불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그리움이 아닐 수 없다. 고려불화를 복원하고 널리 알려온 혜담 스님의 전시회가 열린다.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열리는 '천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 월제혜담 스님의 대 고려불화전' 이다.

신작 3점과 함께 평소 보기 힘든 5m짜리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초청 전시 작품들과 11면 관음도, 양류관음도, 열반상, 오백나한상 등 스님의 대표작 6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불화의 역사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작품을 한 점도 볼 수 없다. 때문에 그 내용과 양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고구려 벽화 등 약간의 사료를 통해 '있었음' 을 짐작할 뿐이다. 백제나 신라의 불화 역시 마찬가지다. 754~755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통일신라의 '대방광불화엄경사경변상도' 1점 정도가 한국불화의 가장 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불화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려불화다.

고려불화는 고려 말기인 1270년부터 약 120년 동안에 걸쳐 집중 조성됐다. 이 시기는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조정이 강화도로 피신해 있던 시기이다. 고려불화가 위기에 처한 국운을 살리는 호국불화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려불화는 대부분이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색채가 매우 화려하면서 기품을 잃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교에 금니(金泥)를 개서 디테일한 선을 살리고, 복채법(비단 후면에 안료를 두껍게 칠해서 앞으로 배어나오도록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은은하고 깊이감이 느껴지는, 고려불화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조선' 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화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만난다. 초기의 불화는 고려의 모습을 품었지만 점점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를 겪고 마침내 지나간 시대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이름을 품었다. 또한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고려불화 대부분이 유실돼 오늘날 전세계를 통틀어 160여 점 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내 소장분은 10여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며, 때문에 대중이 직접 고려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큰 아쉬움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고려불화는 종교미술을 넘어 한 시대를 지나간 예술로서 세계미술사에 남아 있는 '미술사' 이다. (사)계태사 고려불화 학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혜담 스님은 출가 후 40여 년 동안 고려불화의 복원과 보존, 전승에 매진해왔다. 스님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려불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고려불화의 문화사적, 민족사적, 인류사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

"고려불화를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잊혀진 불교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양에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입체감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모양도 같이 변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선조들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700년, 아니 천년의 시간을 넘어 고려불화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혜담 스님은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 화현의 부촉으로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3년여에 걸쳐 첫 작품을 완성했다. 대작이었다. 스님은 시각적인 외형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불화의 채색기법과 안료를 그대로 복원해 천 년 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조성해 왔다. 스님은 1999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전시를 통해 고려불화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또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수 년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혜담 스님을 초청해 고려불화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불화의 가장 먼 역사와 가장 분명한 뿌리인 고려불화를 복원하고 전승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원력불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불화를 잇는 불화장의 탄생과 스승이 끊어진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혜담 스님의 불사에 많은 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033)638-3721.



혜담 스님 作, 열반상

만해 스님의 황현 추모詩 서대문형무소서 첫 공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展

서대문형무소 3월 19일~4월 21일

"의리로써 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갚으시니(就義從容永報國) / 한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一瞑萬古劫花新) / 이승의 끝나지 않은 한 저승에는 남기지 마소서(莫留泉坮不盡恨) / 괴로웠던 충성 크게 위로하는 사람 절로 있으리(大慰苦忠自有人)"

만해(1879~1944) 스님이 1915년 매천 황현(1855~1910) 선생의 '순국' 을 기리기 위해 쓴 시, '매천선생(梅泉先生)' 이다. '순국' 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인 시절이었다. 만해 스님은 친필을 황현 선생의 유족에게 보냈다. 그리고 시는 황현의 친필 유묵첩 〈사해형제(四海兄弟)〉에 실렸다. 그 아픈 역사를 적고 있는 스님의 친필(복제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10, 12옥사에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展을 연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가장 선명한 흔적,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100년 전 수많은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마련한 전시로, 그동안 문화재청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항일독립문화재 발굴성과로 탄생한 항일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 모았다. 경술국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까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문화재에 깃들어 있는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들어가며 △1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 △2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 △3부 광복, 환국으로 구성했다.

1910년(경술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아갔다. 경술국치. 시대의 아픔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황현 선생은 9월 10일 절명시(絶命詩)와 유서를 남기고 순국했다.

"어지러운 세상에 떠밀려 백발의 나이에 이르도록(亂離滾到白頭年) /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네(幾合捐生却未然) /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今日眞成無可奈) / 바람 앞의 가물거리는 촛불 푸른 하늘 비추누나(輝輝風燭照蒼天)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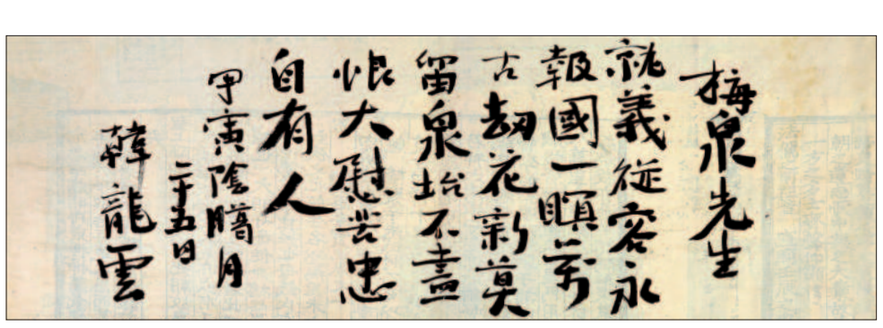
용성 스님과 3.1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에 독립혼을 심는 데 앞장서온 만해 스님은 고결한 황현 선생의 순국을 몇 해 후 진한 검은 글씨의 추모시로 다시 기억한다.

전시 도입부인 '들어가며' 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선 말기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의 유물이다.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한 황현 선생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절명시' 와 그의 후손들이 100여 년 동안 간직해온 황현의 친필 유묵첩 '사해형제' , 신문자료를 모은 '수택존언(手澤存焉)'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 '사해형제(四海兄弟)' 에는 황현 선생의 순국을 애도한 만해 스님의 추모시 '매천선생(梅泉先生)'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수택존언(手澤存焉)' 은 황현의 저서 '매천야록(梅泉野錄)' 중 안중근 관련 집필 기초 자료로 안중근 의사(1879~1910)의 공판기록과 하얼빈 의거 전에 남긴 시가 꼼꼼히 담겨 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종의 국장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가제)' 등도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이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국민이 항일독립 문화재에 선명하게 새겨진 애국선열들의 조국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항일독립 문화재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600-0064.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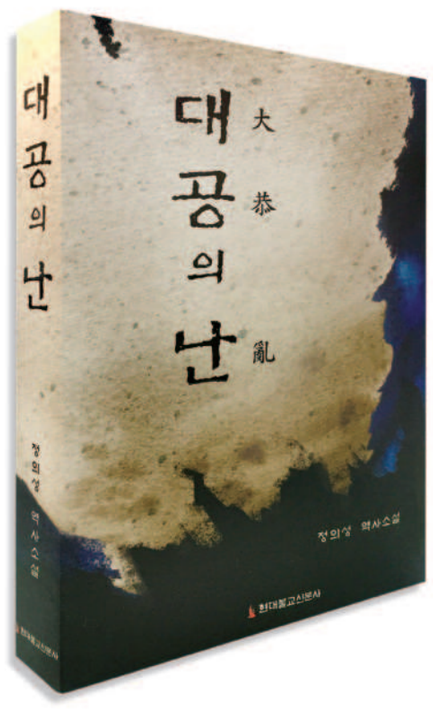
만해 스님이 황현의 순국을 추모한 시 '매천선생' 친필.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교학 강세… 禪수행 심리효과 조명 '눈길'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下)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보광)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가 14명이 배출됐다. 석사 학위자는 48명이 나왔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다만, 저자 요청으로 미공개된 논문들은 제외했다.

조계선문, 禪불교의 뿌리

진관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조계선문 교학체계 연구'는 중국의 조계선문이 우리 선문의 뿌리이고, 이에 형성된 교학 체계를 계승한 주체임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스님은 당대 초기부터 융성기까지 조계선문은 달마 · 동산 · 우두 · 능가 등의 선문으로 분파됐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스님은 〈능가경〉과 〈대승기신론〉이 조계선문에서 〈금강경〉 등이 능가선문에서 선용됐음을 상기시키며 "분파들이 소의경론과 교학체계를 크게 달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관 스님은 "초기 선종은 달마에서 혜능에 이르는 '조종육엽(祖宗六葉)'을 중심으로 조계선문으로 회통된다. 따라서 우두와 신수도 조계의 일파라 봐야 한다"면서 "분종적 시각은 후대의 종론(宗論)에 따른 것일 뿐이다. 하나로 회통하여 본 조계선문은 불타의 교설을 여실히 봉대한 일파"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님은 염불 · 간경 · 참선은 귀일(歸一)한다고 봤다. "중국 조계선문의 진의에서 본다면 염불문 · 간경문 · 참선문은 귀일한다"면서 "간화뿐만 아니라 묵조 · 염불 · 간경 · 주력 · 절 수행 등이 참선문에 들어갈 수 있다. 행법(行法)의 다변화는 인정하되, 불타의 교설에 따른 수증교학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야광석〉 대한 유식적 해석 연구

구효정(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대품 반야의 유식학적 해석연구'는 〈만팔천송〉 〈이만오천송〉 〈십만송〉 3개의 대품 반야에 대한 인도의 주석서인 〈반야광석(般若廣釋)〉에 나타난 유식적 해석들을 분석했다.

저자는 〈반야광석〉의 주석 대상인 대품 반야의 사상적 전개가 드러나는 교리들을 정리하고, 유식 교리들을 포함한 텍스트 전체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삼성설(三性說)에 초점을 맞춰 〈반야광석〉 주석을 분석했다.

그는 "〈반야광석〉은 대품 반야의 거의 모든 사상들을 삼성설과 결합해 주석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삼성설을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반야광석〉의 삼성설은 미륵청문품의 삼상(三相)의 술어로 표현되지만, 경전과 주석서의 삼성설을 비교한 결과 주석서의 해석은 원성실성의 강조로 변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효정은 〈반야광석〉이 〈변중변론송(辯中邊論頌, MAVT)〉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그는 "〈보성론〉 선취공의 개념을 선택한 〈반야광석〉이 각 공의 마지막을 〈변중변론송〉과 같은 방식으로 끝맺고 있다. 〈변중변론송〉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화선 수행, 심리 안정에 긍정적

김혜원(대학원 선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간화선이 수행자의 심리 ·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간화선 수행자 11명을 대상으로 수행 전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군에는 세납 30~60대, 법랍 10~40년까지 고루 분포됐다. 실험은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실험결과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증가와 각종 심리검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점이다.

도파민은 동안거 수행 후 증가했는데 하안거 집단보다 동안거 집단에서 그 차이가 14배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이에 대해 김혜원은 "고도의 정신기능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수행이 뇌의 쾌감을 증가시킴으로서 불쾌한 일을 잊게 하는 유용한 작용을 했다. 또한 수행의 집중력을 높여 만족감을 높게 올려놓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함께 그림검사(HTP), 벤더-게슈탈트 검사(BGT), 지능검사(K-wais), 로샤검사(Rorschach), 불안척도(BAI) 등과 같은 심리검사에서는 간화선 수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실제 수행 후 그림검사는 자기방어의 감소, 정서적 안정감의 증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지각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를 보였다. 지능검사에서는 단기기억, 주의 및 집중력, 시각적 예민성, 지각적 표상능력, 관리기능과 같은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향상을 나타냈다.

김혜원은 "간화선 수행은 심리적, 생리적 결과를 통해 인지, 정서, 자아기능,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량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중론에 십이연기 첨부된 까닭은

조종복(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십이연기와 팔불연기의 정합성 연구'는 십이연기와 팔불연기가 모순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가 〈중론〉 제26장에 십이연기를 아무런 설명없이 그대로 첨부한 이유를 밝혔다.

십이연기의 사상적 변천 과정과 〈중론〉과 여러 용수의 저술을 통해 살펴본 저자는 〈중론〉의 연기가 제법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상의성 연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종복은 "〈중론〉에는 다양한 논법이 구사되지만, 그중 하나는 두 가지의 관계를 상호의존 관계로 상정해 무자성 · 공을 분명히 한다. 용수에게 상호의존 관계란 어디까지나 무한순환의 상태에 다름 아니다"면서 "용수가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속하는 시간과 관계되는 것이지 상의성 연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혹으로부터 깨달음'을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한 제26장의 십이연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론〉 제25장에서 열반을, 제26장에서 십이연기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태 사교와 에카르트 사교 비교

한영애(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천태 사교의 사상적 연구'는 천태 지의와 기독교 사상가인 에카르트의 사교를 비교 · 분석했다.

천태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경전을 '화법사교'라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불교교리를 체계화한 것이다. 독일의 신비주의자인 에카르트 역시 초탈, 무, 돌파, 합일이라는 일련의 교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비교한 한영애는 "천태 지의는 장교의 해탈, 통교의 공무, 별교의 차제, 원교의 원융이라는 해행(解行) 과정을 가지고 법계실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고, 에카르트는 초탈, 무, 돌파, 합일이라는 일련의 신행과정으로 설명했다"면서 "해탈과 초탈, 공무와 무, 차제와 돌파, 원융과 합일은, 시대와 장소를 전혀 달리하지만 사상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전기 불상 종합적 고찰

손태호(대학원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의 박사학위 논문 '조선 전기 불상 연구— 목조 · 건칠불을 중심으로'는 그간 시기 · 종류 등 특정 범위에 한정된 연구 범위를 넘어 조선 전기 불상의 종합적 고찰을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불상 조성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파악하고 조성발원문을 분석하여 후원세력, 지역별 분포, 조각승 등을 고찰했다. 조선 전기 각 불상의 현황파악을 통해 조선 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손태호는 "조선 전기 목조 · 건칠불상은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로부터 계승한 전통불상양식을 기본으로 15세기 전반기 장중한 형태의 불상이 조성됐다. 15세기 후반에는 티베트계 명나라 불상양식이 가미됐다"면서 "중종반정 이후 한동안 불상 조성이 침체를 겪은 뒤 문정왕후 이후 다양한 불상이 조성되면서 젊은 상호, 간소화되고 간략화한 옷주름, 장신구, 보관 등 검소한 유교적 인간상이 불상의 양식에도 반영됐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각승 도상, 佛道 전법 의미 표현"

김혜원 연구관, 〈미술자료〉서 둔황 '행각승도' 재해석

걷는 모습의 아이콘으로 분석

보승여래 개념, 후대에 추가돼

중국 둔황 석굴에서 출토된 '행각승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혜원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예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정기학술지 〈미술자료〉 제94호에 게재한 '보승여래, 행도승, 구름 - 둔황 장래 행각승도 다시 읽기'에서 "중국 둔황 '행각승도'가 걷는 모습의 승려 도상을 통해 불교 전법 · 구법했던 스님들을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연구관이 분석한 '행각승도'는 여러 경전을 짊어지고 여행하는 승려를 묘사한 그림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전 세계에 12점이 남아있는 귀중한 도상이다.

일반적으로 '행각승도'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현장법사(602?~664)나 티베트 18나한 가운데 한 명인 달마다라, 방제인 보승여래의 화신으로 분석돼 왔다. 김혜원 연구관은 기존 연구와 더불어 '움직이는 모습의 아이콘'으로서의 도상의 의미를 밀도있게 분석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당대(唐代) '행도승(行道僧)' '행승(行僧)'과 관련해 '행각승도'에 표현된 '걸어가는 모습'에 주목했다. 특히 〈고승전〉 〈속고승전〉에서 산야를 두루 돌아다니며 중생을 제도하는 승려들이 '행도'라는 표현과 함께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혜원 연구관은 "행도승, 행승 도상 형성에는 불교 전래 이래 중국 전역을 다니며 수행하고 불법을 전하는 승려들과 이들에 대한 전승,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존 시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승려들의 걷는 모습은 이들의 역할과 활동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 둔황석굴 '행각승도.' 10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행각승이 타고 있는 구름은 중생 구제를 목적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추가된 시각적 요소"라고 해석했으며 "'행각승도'의 방제인 '보승여래'는 본래 그림 속 행각승 위에 표현된 작은 부처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행각승을 보승여래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 제94호에는 △최성은의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 △김규훈의 '1695년 태종 헌릉 신도비의 재건 연구' △오다연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독락원도, 임모와 창작의 변주' 등이 함께 수록됐다. 해당 논문들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미술자료〉는 1960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미술사 전문 학술지다.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발간되며, 학술논문 외에도 박물관의 미공개 소장품을 비롯한 새로운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발표회

3월 9일 '몸 · 마음 · 은유' 주제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오는 3월 9일 오후 1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3층 대강의실에서 '몸과 마음과 은유'를 주제로 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초기유식사상에 있어서 아뢰야식의 신체적 메커니즘(향산 스님, 중앙승가대)' △'비유의 불교적, 전일론(全一論)적 해석(홍성기, 아주대)' △'성문계와 대승보살계의 사념처 수행체계(유정 스님,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자살 유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요가(김재민,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또한 김치온(진각대학원), 안환기(서울대), 신상환(중관학당), 정은혜(성균관대),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김한상(한국외대), 박영길(금강대), 이범수(동국대) 등이 논평자로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④ 우수(雨水)
버섯강정 · 호박죽 · 사찰 보양탕

사찰 보양식 주재료 '버섯'

복수초가 보이는 우수에는 바람이 유난히 잦다. 아무래도 눈이 녹아 비를 만드느라 바람이 돕는 모양이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차밭을 지나치다보면 군데군데 노오란 복수초가 솜털줄기를 밀어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식물이다.

복수초를 찜기에 찐 다음 말려두었다가 차로 음용해 먹기도 하고 곱게 가루를 내어 다완에 가루를 넣고 차선으로 거품을 내어 말차로 만들기도 한다.

출가하여 산중에서 설명절마다 만들던 쌀강정을 10년 넘게 노스님 밑에서 익히다보니 고추장을 이용한 버섯강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생표고버섯을 소금을 뿌려 밑간해 전분을 묻힌 뒤 물기를 없애고, 밀가루반죽을 입혀 두 번 튀긴 다음 고추장과 조청 매실청을 넣고 섞어서 바삭하게 센 불에 양념을 입힌 버섯강정은 호박씨와 해바라기씨를 뿌려서 먹는 발우공양 음식점의 오픈메뉴였다. 전통을 벗어났다고 호되게 시비하는 비구니 선배스님들과 "맛이 있으면 좋을시고"라고 칭찬하는 분들…. 호불호가 갈렸던 음식이다.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나름의 소중한 시간을 경험했고, 경험한 만큼 보인다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만들지 않는 교훈도 얻었다.

겨우내 서걱서걱한 얼음 속에서 푹 익은 동치미는 호박죽과 함께 먹는 맛 또한 일품인 시절이다. 이때쯤 반질반질 윤기 나는 호박껍질을 벗겨내고 드러난 속살을 보면 주홍빛이 짙다. 씨는 모아서 파종을 위해 말려두고, 팥과 찹쌀을 풀어 몽글몽글한 찹쌀이 씹히는 호박죽은 팥알갱이가 퍼지지 않게 삶아서 채에 받쳐 물기를 빼내고 죽에 넣어야 호박죽이 정갈하게 된다. 또한 요즘 흔하게 보이는 것이 견과류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항노화식품 견과류는 불과 10년 새에 절집의 겨울철 보양탕의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버섯강정


호박죽


사찰 보양탕

여러 종류의 버섯과 견과류, 연근, 단호박을 넣고 만드는 보양탕은 특히 마른 버섯인 목이버섯의 효능이 대단하다. 흔하다고 가볍게 여겼던 목이버섯은 서양에서는 예수의 제자 유다가 목을 맨 나무에서 자란다고 유다의 귀라는 별칭이 있다.

우리 몸의 멜라닌 색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목이버섯은 대개 잡채에나 넣어 먹는 식재료였다. 사찰에서는 된장찌개에 넣거나 불려 곱게 채 썰어서 잎채소와 나물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보살님들은 얼굴에 팩 재료로 사용하도록 알려드리기도 한다. 검버섯을 걷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목이버섯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일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음식은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함께 태동한 이래 민초들의 밥상이나 귀족의 밥상이나 다름없이 채소음식이 주를 이루고, 각 지방의 특산물에 따라 더해지거나 특화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작금의 사찰음식이 오래도록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공존하는 생명살림 문화로서의 의미는 희석되고 건강음식으로만 회자될까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 세상의 수많은 음식 중에서 사찰음식의 고유성은 불교라는 자비로운 정신에서 태동하여 실천적 삶의 가치관까지 이끄는 데 일조하였다.

버섯강정
표고버섯 3개, 양송이버섯 3개, 새송이버섯 ½개, 청피망 ⅓개, 홍피망 ⅓개, 견과류(호박씨 · 해바라기씨 섞어서 1T), 식용유 적당량, 전분 적당량
소스재료 : 고추장 1T, 송표간장 1T, 조청 1T, 매실청 1T
반죽만들기 : 밀가루 1컵, 물 ⅘컵, 전분 2T, 소금 약간

1. 생버섯은 마른수건으로 토닥거리면서 먼지를 털어낸 후 물수건으로 닦는다.
2. 반죽용 재료를 섞어 양에 맞추어 만들어 놓는다.
3. 청 · 홍피망은 버섯 크기정도로 썰고 견과류는 굵게 다져놓는다.
4. 손질한 버섯을 전분에 살짝 굴린 후 2의 반죽 옷을 입혀 두 번 튀겨낸다.
5. 고추장소스 재료를 예열된 냄비에 넣고 끓으면 버섯과 피망을 넣고 뒤적인다.
6. 버무린 버섯을 접시에 담고 마지막에 견과류를 뿌린다.

호박죽
청둥호박(늙은호박) 800g, 팥 반컵, 찹쌀가루 200g, 소금½T, 꿀 1T

1. 냄비에 불린 팥을 삶는데 끓으면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삶아서 체에 받쳐 물을 뺀다.
2. 다듬은 청둥호박을 잘게 썰어 솥에 넣고 물 2컵을 넣고 끓인다.
3. 호박이 풀어지면 찹쌀가루를 넣고 팥을 넣고 더 끓인다.
4. 소금과 꿀을 넣고 간을 맞춘다.

사찰 보양탕
연근 1개, 단호박 30g, 참나물 30g, 양송이버섯 4개, 느타리버섯 5개, 팽이버섯 ½봉지, 호두 · 잣 · 호박씨 각 1T, 들깨가루 1T, 콩가루 ½T, 쌀가루 1T, 들기름 1T
채수물(마른표고버섯 5개, 다시마(5×5cm) 5장, 물 3컵)

1. 마른표고버섯과 다시마로 물 3컵에 7분 끓여 채수물을 준비한다.
2. 채수물에서 사용한 표고버섯을 건져내 깍둑썰기하고 물기를 짠다.
3. 연근과 단호박도 깍둑썰기하고 버섯도 모양대로 썬다.
4. 견과류는 굵게 다진다.
5. 참나물은 끓는 물에 데쳐놓는다.
6. 콩가루와 들깨가루, 쌀가루는 미리 섞어 채수물 2큰술 정도 넣고 불린다.
7.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과 연근, 단호박을 넣고 덖는다.
8. 맛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나머지 재료를 넣고 마저 끓인다.
9. 한 번 끓어오르면 견과류와 가루물을 넣고 끓인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④ 내장지방

비만, 건강 악화 · 수명 단축 지름길

요즘 '과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 유감스럽다. 아울러 육류와 설탕의 과다 섭취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감스럽다. 어떤 음식이든 적당히 먹어야 하며, 섭취된 열량에 비례해서 활동을 통한 소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인의 섭취 열량은 지나치고 소모는 부족하여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이나 과거 성인병이라 부르던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지방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만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축적되었다면 뱃속에 내장지방 형태로 쌓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실제로 약간 통통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그런 부위의 지방은 최소한 내장비만 보다는 덜 심각하거나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는 내장지방이 쌓인 형태의 복부비만이 더 흔하다.

내장지방은 몸속에 쌓여 내부에 있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내장지방이 증가한다. 같은 나이일 경우에는 당연히 비만일수록 내장지방이 늘어나는데, 이때 비만하다는 것은 체질량지수[체중(Kg)을 키(m)의 제곱수로 나눈 수치]를 근거로 한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체질량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이면 '비만 전단계', 25~30은 '1단계 비만', 30~35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은 여자가 많지만 내장지방량은 남자가 더 많아서 체지방에서 내장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은 20%, 여성은 6%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전과 폐경 후의 상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의 결핍은 내장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킨다. 내장지방 역시 체질과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생활습관이 크게 작용한다. 과식, 과음, 흡연은 내장지방 증가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내장지방은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위험인자이며, 담석증이나 담낭염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복강의 공간이 좁아져 횡격막을 밀어 올려 호흡을 통한 허파의 환기에 곤란을 겪게 한다. 이것은 만성적인 폐질환을 일으키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나 공기 교환을 방해하는 효과가 더 커서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게다가 암과 내장지방의 상관성도 높다. 내장지방은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 정도를 4.5배까지 보고하고 있다. 근래에는 암 세포가 임파를 통해 전이되는 것에 지방이 관여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내장지방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컴퓨터 전산화단층촬영법(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허리와 엉덩이 둘레를 재고 그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우선 복부 비만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내장지방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재어 그 비율이 남자는 0.95 이상이고, 여자는 0.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판단한다.

과식 · 과음 · 흡연 지방증가 큰 요인
유산소운동 · 근력운동 병행해야

몸 속의 수분과 근육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쉽게 줄어들지만, 지방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내장지방은 더욱 그렇다.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과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내장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산소운동은 산소 소모량을 늘려주는 운동이고, 근력운동은 근육의 힘을 기르는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내장지방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는 유산소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조깅이나 빨리 걷기는 20분 이상 지속될 때 지방을 연소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정한 상태의 에너지 분해량을 의미하는 기초대사량의 저하는 근육량의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중년 이후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250g 정도씩 근육이 줄어든다.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지방이 차고, 그 지방은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두 개의 근육을 고르라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있다. 이들 근육은 체온 유지와 기초대사량 유지에 중요하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이들 근육을 최소한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이들 근육이 줄고 내장지방이 늘면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이 다가온다. 그런데 내장지방이 내분비나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소화기나 호흡기,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근력운동이 중요하다 해도 짧은 시간의 고강도 운동만으로는 지방을 태워 없애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때는 지방보다는 포도당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적당한 운동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만 한다. 최대 운동 강도의 20~4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정도의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빨리 걷기와 조깅이다.

이제 '먹는 것'으로 돌아가 보자. 굶으며 하는 운동은 지방연소에 도움이 안 된다. 근육과 수분이 고갈될 뿐이다. 생리기능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며, 지방연소를 위해 물과 산소는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근육활동 시 물과 산소가 다량 소비된다. 카페인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시켜 핏속으로 지방산을 유출시키는 과정을 촉진하지만 다이어트 등으로 예민해진 상태를 심화시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내장지방을 빼는 침과 한약은 없나? 물론 있지만 침과 한약은 운동과 음식섭취 제한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병원장〉

선조들의 지혜로 탄생한 '무르벤'

시리고 아픈 무릎, 참옻과 닭발이 만났다
지긋지긋한 몸의 냉기(冷氣)를 잡아라




(주)참옻들 정태영 대표

나이가 들면서 주로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체 부분이 무릎이다. 주로 서서 집안 일을 많이 하기에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결과 시큰거리거나 시리고 아프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했기에 무릎이 더 상했을 것이고 이 때 선조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무릎을 보호하는 건강식품을 만들어 먹었다. 바로 참옻과 닭발의 만남이다.

이 시도는 연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오랜기간 옻을 연구한 ㈜참옻들 정태영 대표와 남편 박기영 씨에 의해 실용화 됐다.

무릎시림과 냉기를 잡아라!
농축진액 무르벤'의 탄생

남편과 옻연구 및 개발위 충북 옥천에 정착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부친이 예전에 이런 상황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액을 만들어 준 기억이 났습니다. 부친은 국내 최초로 옻전문식당을 운영하셨든요."

'참옻들' 연구소장이기도 한 박기영 씨는 "이 진액은 아내의 무릎을 낫게 했고 이를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다."며 "그래서 '조선시대 왕에게 옻을 공납했던 충북 옥천에 터를 잡고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콜라겐 덩어리인 닭발이고 농축 영양을 제공했고 여기에 옻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상승시켜 자신이 나았다고 판단했다. 옻은 위장질환이나 혈액순환, 부인과 질환 등에 효험이 있어 오래 전부터 전통약재로 활용돼 왔다.

전통 끊긴 옻제품 복원 등 옻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물이 맑고 토질이 좋은 옥천은 2005년 옻산업 특구로 지정됐고 정 대표와 남편의 오랜 연구 결과로 '무르벤'이 탄생했다.

"80년 이상된 100% 국내산 토종 옻나무와 닭발을 최적의 비율로 결합시켰습니다. 여기에 여러 한방 약재를 첨가함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높은 농축 진액 '무르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 대표는 "많은분들이 자신은 옻독이 올라 옻건강식품은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젠 옻독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성이 보장됐다."며 "계속 옻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해 인기가 높으며 남편과 무독화옻 등 12가지의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옻제품 원료생산 옻산업특수 지정된 옥천

몸에 냉기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몸이 잘 붓고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하며 푹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아 짜증을 자주 낸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데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손과 발이 찬 분이라면 전통약재를 쓴 이 무르벤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장수버섯균사체에 의한 옻독제거기술로옻이 두려운 식물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 인식됐고 이는 정대표의 옻제품 개발에도 큰 힘이 되었다.

"지하 200m 암반에서 뽑아 올린 게르마늄 물은 옻 추출물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품질유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만들어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남편과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공기 맑고 물좋은 옥천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니 늘 행복하고 기쁘다"고 밝게 웃었다.

www.sspark24.com
문의)1577-2298